

2026 **7**  
VOL.253

#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시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MOVE MOVE

제15회  
젊음의 축제

1 ON 1 BATTLE COMPETITION AND PERFORMANCE CONTEST

**2026. 07. 18 SAT 12:00PM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부산 2호선 국제금융센터 부산은행역 1번 출구)

MC U-BONG

DJ SOM

SHOWCASE MAVERICK'S FLATS

LOCKING  
LOCKING KHAN  
YOUNGGREEN

WAACKING  
MARID  
WIZZARD

HIPHOP  
BABYSLEEK  
UNCLE

OPENSTYLE A.K.A TWO YOUNGGREEN MARID UNCLE

PERFORMANCE NOLLBOO SOULQUA RALE KUKI

(오픈스타일과 퍼포먼스는 만 20세 이하 청소년들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총상금 1,000만원**

# 예술부산

ART BUSAN MONTHLY



藝術釜山

2026. 7. | VOL.25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ART BUSAN MONTHLY VOL.253

2026 JULY 7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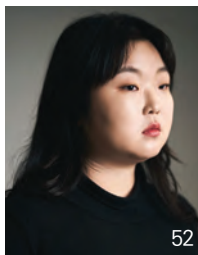
#### 예서제서

- 06 갈매랑축제 -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
- 12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건축상상마당  
청소년국악제-온고지신  
2026 청소년시낭송대회  
학생그림공모전  
학생사진공모전  
2026 청소년 K-pop 페스티벌
- 18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시화전)
- 19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
- 20 제33회 부산국악대전
- 21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 부산
- 22 2026 부산국제사진제
- 24 2026 부울경사진교류전
- 25 낙동아트센터 - NAC@2026 지역민간교향악축제
- 28 굿GOOD보러가자 부산
- 30 현대미술의 혼돈과 북한미술의 역설... 문범강 교수 특별강연 개최



표지\_제35회 부산무용제 대상작  
사진제공\_부산무용제

춤 삼경 <굿, 길베>



### 기획특집

- 32 '전재수 시정' 부산 문화정책의 변화와 과제 \_ 정달식  
34 부산오페라하우스,  
세계를 향한 꿈과 지역을 품는 지혜 \_ 김지호  
36 부산 문화, 세계 속에 우뚝 서느냐  
'촌뜨기 수준'에 머무르나 \_ 심수화

### 포토에세이

- 44 여름에 피는 꽃 \_ 홍순희

### 수필의 뜰

- 48 수월관음도 \_ 김창균

### 인물포커스

- 52 연극배우 서예은 \_ 유다정

### 예인탐방

- 54 무용가 김미자 \_ 정혜주

### 예술가열전 246

- 56 송운松韻 차달속車達淑 \_ 윤기선

### 손으로 쓴 문학

- 60 꽃길로 가신 어머니 \_ 윤기선

### 들여다보기

- 62 음악/ 나는 너무 늙은 세상에 너무 젊게 나타났다. 에릭 사티 \_ 김윤선  
65 무용/ "두려움에 대항하는 몸"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_ 장정윤  
70 무용/ 제35회 부산무용제, 부산 춤의 현재를 묻는 세 개의 몸 \_ 함수경

### 기획연재

- 72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1화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부산역 \_ 이용득  
76 예총-전사-공연 뉴스  
80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6년 7월 통권 253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6년 6월 24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해숙(문인협회), 최창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장\_ 정혜주 편집기자\_ 아선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충문 교정·교열\_ 배해경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축제 갈매랑축제

2026. 5. 28. ~ 6. 2. 부산시민공원 다솜잔디광장

부산예총이 매년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개최하는 갈매랑축제가 올해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축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갈매랑축제는 공연의 완성도와 격식을 중시하는 실내형 무대에서 벗어나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며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의 시작은 ‘도시의 언어-시화전’과 ‘AI로 재구성된 순간들’ 사진전이 알렸다. 시민들은 시 낭송 체험을 통해 문학적 정서를 직접 느끼고 공유했으며, 사진전에서는 원본 사진과 AI 기술로 재구성된 이미지를 비교하며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즐겼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故 최민식 작가 특별전도 함께 마련돼 한국전쟁 이후 부산 시민들의 삶을 기록한 사실주의 사진을 통해 시대의 풍경과 서민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메인 공연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라인댄스가 펼쳐지며 축제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참가자들은 잔디광장에서 음악에 맞춰 일체감 있는 동작을 선보였고, 이후 이어진 공연에서도 흥겨운 장단에 맞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며 축제를 만끽했다.

색소폰과 드럼 공연에 이어 부산예술회관 합창단은 「흰수염고래」와 「예술이야」를 선보이며 감동적인 하모니를 들려줬다. 이바디예술단은 「엄마아리랑」과 「삼도설장구가락」으로 절도 있는 장단과 역동적인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통기타 라이브 무대에서는 관객들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함께 따라 부르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감의 시간을 만들었다.



1



2

- 1 갈매랑축제 무대전경
- 2 메인공연\_박상용무용단
- 3 메인공연\_라인댄스
- 4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 인사말
- 5 김정기 부산예술후원회 회장 인사말



3



4



5



6

이어 나타라자브이는 강렬한 비트와 완성도 높은 군무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한울 남성성악가 앙상블은 노을이 내려앉은 공원에 낭만적인 선율을 더했다. 박상용무용단은 국가무형유산 제8호 강강술래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 <해월연(海月宴)>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메시지를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하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무대를 선보였다. 축제의 마지막은 가수 강민수가 다양한 트로트 무대를 선사하며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흥겨운 피날레를 장식했다.

갈매랑축제는 메인 공연 외에도 부산국제무용제 특별공연, 생활예술페스티벌, 다양한 예술체험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

했다. 부산예총은 앞으로도 시민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축제의 장을 통해 예술문화도시 부산의 가치를 확산하고, 예술이 일상 속 즐거움과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매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편집실

- 6 메인공연\_가수 강민수
- 7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열린무대\_광스무용학원
- 8 메인공연\_나타라자브이
- 9 메인공연\_한울 남성성악가 앙상블
- 10 메인공연\_통기타라이브
- 11 메인공연\_색소폰, 드럼
- 12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열린무대\_에스탄츠무용학원
- 13 생활예술페스티벌\_대중가요 국악제
- 14 부산예술회관 합창단





1



2

- 1 故 최민식 작가 사진전
- 2 부산사진작가협회\_즐거운 나들이 인증샷
- 3 부산건축가회\_건축물모형만들기

2026  
부산예총

갈

매

랑

축

제

예

술



4



5



6



8



7

- 4 갈매랑축제 다솜잔디광장
- 5 부산무용협회\_시민대동춤 배우기 및 무용 의상·분장 체험
- 6 부산연극협회\_가족한마당-인형극공연&가면만들기



7 부산자문화진흥원 차와 함께한 문화의 향유



8 부산문인협회 책나눔행사, 문학창작지도&시창작 캘리그래피 체험

9 부산생활예술인협회 나만의 최애 문장 캔버스 체험



10 부산미술협회 부산자랑 10가지 시민예술제 미술실기대회

11 부산진경철서 교통관리과,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 홍보

12 부산꽃예술작가협회\_반려식물키우기(테라리움)&핸드부케

13 부산음악협회\_다양한 악기 체험 및 만들기

14 부산연예예술인협회\_대중예술체험

15 이바디예술단 거리홍보퍼레이드



# 체험



15



##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건축상상마당

2026. 5. 16. 부경대 건축관

제18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이 '바다와 도시 사이'라는 주제로 부경대 건축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청소년 23명이 참여해 자신만의 수변도시 공간을 설계하고 건축 모형으로 구현하는 등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으로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부산의 바다 일대가 소재로 다뤄졌고, 참가자들은 건축 모형 제작 과정에서 도시 동선과 개방감, 자연 채광, 공공성 등 실제 건축 설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들을 고민하며 작품을 완성했다.

심사는 이주영, 조호제, 김문성 건축가가 맡았다. 심사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건축모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으며, 심사위원들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다. 미래 건축가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올해 부산광역시장상 대상은 상공에서 바라보면 물방울 형상을 나타내는 다층적 구조의 건축물을 제작한 추보규(부산진고)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김서경(해운대여고), 김승환(부산남일고), 우수상에는 김세형(경남공업고), 남규미(경해여고), 이송현(성일여고)이 수상했다.

부산건축가회 김두진 회장은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담아내는 공간 작업이며,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도시와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편집실



부산광역시장상 대상\_추보규(부산진고)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청소년국악제-온고지신 전통을 품고 내일을 연주하다

2026. 5. 23.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국악협회(회장 김영욱)가 주관하는 국악의 맥을 이어가는 청소년 국악인들의 무대가 청소년국악제 <온고지신\_전통을 품고, 내일을 연주하다>로 한자리에 마련됐다. 축제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국악제는 부산국악대전을 통해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청소년들이 초청되어 당찬 미래의 숨결을 선보였다.

‘옛 소리를 품다’로 진행된 첫 무대는 박디아(부산예술고)의 창작무용 「당신이 없는 계절」이 올랐다. 화려한 옷자락이 흩날리는 움직임에 독무대임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시선을 선사했으며 맑고 분명한 몸짓이 바람결에 속삭이는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가야금병창 심청가 중 방아타령」을 이솔민(서울동광초)이 당차고 똑 부러지게 연주했다.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갈까부다」는 이지영(국립전통예술중)이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춘향의 심정을 슬픔과 애절함을 담아 구성지게 불렀다. 「최옥삼류 가야금산조」는 정예현(국립전통예술고)이 화려한 기교와 역동적인 표현의 선율을 고아하게 전달했다. 김효정(국립전통예술고)이 「서도민요 긴난봉가, 자진난봉가」를, 황서진(한국예술종합학교)이 「서도민요 산염불과 자진염불」을 차례로 들려줬다.

‘오늘의 숨결로 잇다’에서는 서동욱(경북예술고)이 나서 「상령산 풀이 피리독주」에 진중한 자세로 임했으며, 오준희(국립전통예술고)가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를 섬세하면서도 힘있는 선율로 들려줬다. 「판소리 심청가 중 심청 선인 따라가는 대목」을 이서현(국립전통예술고)이 작별하고 탄식하며 떠나는 심청의 구슬픈 장면으로 그려냈고,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탄

식하는 대목」을 김서현(남원예술고)이 우수한 기량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매방류 승무(경기대풍류)」를 노해나(부산예술고)가 가녀린 선으로 완성하고, 마지막 무대는 이다현(국립전통예술고)이 휘몰아치는 가락의 긴장감과 에너지를 뿜어내며 「채상선반설장구」의 무대로 완성했다.

공간을 가르는 채상의 움직임이 몸짓에 따라 무대 가득 수많은 원을 그려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황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국악의 멋이다. 전통을 대하는 진지한 자세와 깊이 있는 여정을 향해가는 청소년 국악인들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 편집실



1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탄식하는 대목\_김서현(남원예술고)  
2 이매방류 승무 (경기대풍류)\_노해나(부산예술고)



##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2026 청소년시낭송대회

2026. 5. 16 영광도서 문화홀

청소년시낭송대회에서 시는 눈으로 읽히는 순간을 넘어 누군가의 목소리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한 편의 시를 자신의 호흡과 감정으로 풀어내는 시낭송은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전달하며 청중의 감각을 두드린다.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혜숙)에서 주관한 ‘청소년시낭송대회’는 올해도 시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객석을 메운 관객들은 무대에 오른 청소년들의 떨림 어린 목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고, 무대 위 참가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의 분위기와 정서를 풀어냈다. 이번 대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며 고전시와 현대시 등 다양한 작품을 낭송했다. 단순히 글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해석과 감정을 더해 시를 표현하는 모습은 낭송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힘 있는 목소리로 이어진 시 낭송은 같은 작품이라도 누가 읽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느끼게 했다. 특히 청소년들의 진솔한 표현은 시를 어렵고 멀게 느끼기보다 지금의 감정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만들었다. 무대 위에서 한 줄의 시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집중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문학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중등부 대상은 정일근의 「울란바토르행 버스를 기다리며」를 들려준 김규희(해강중학교)가, 고등부 대상은 손택수의 「흰둥이 생각」을 낭독한 김금주(동주여자고등학교)가 수상했다. 그 외에도 김춘수, 백석, 나태주, 윤동주 등 익숙한 시인의 작품들이 청소년들의 낭송을 통해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왔다. 이날 무대에 오른 청소년들은 한 편의 시를 자신만의 이야기처럼 풀어내며 문학이 단지 읽히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직접 울리는 순간을 만들어 냈다.

/ 편집실

1 고등부 대상\_김금주(동주여자고등학교)

2 중등부 대상\_김규희(해강중학교)



부산시장상\_김소민(브니엘예고)



부산예총회장상\_최시아



부산미협이사장상\_이준섭(브니엘예고)

##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학생그림공모전

2026. 5. 18. ~ 23.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자신만의 색과 시선으로 세상을 표현한 학생들의 작품이 관람객들과 만났다. 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가 개최한 '학생그림공모전'에서는 수채화와 한국화, 소묘, 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의 심사를 거쳐 50점의 수상작과 55점의 입선작을 공개하며 미래 미술계를 이끌 예비 예술인들의 가능성을 선보였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자신만의 감각적인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전통적인 화법이나 형식에 머무르기보다 솔직한 상상력과 감정을 자유로운 표현으로 청소년들만의 개성과 감각을 드러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중 인물의 개성과 표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김소민에게 부산시장상이, 원근감이 강조된 구도와 빛의 반사를 활용해 도시 풍경의 역동성을 표현한 장광호와

부드러운 색의 변화와 안정적인 구도를 통해 일상 속 순간과 공간의 깊이감을 담아낸 박경린에게 교육감상이 수여되었다. 또한 화면을 가득 채운 과일과 물의 흐름으로 생동감을 전달한 이예륜과 전통 단청의 화려한 색채와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최시아가 부산예총회장상을 수상했다. 바다의 역동성을 표현한 이준섭이 부산미협이사장상을 받았다.

전시 작품들은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학생들이 바라본 세상과 생각을 담아내며 공감과 감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처럼 각자만의 개성 있는 작품들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보여주며 부산미술계의 희망을 엿볼 수 있게 했다.

/ 편집실

##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학생사진공모전

2026. 5. 20. ~ 23.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

사진은 찰나의 순간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의 시선과 감정을 함께 담는다. 같은 풍경이라도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남기고자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올해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개최한 '학생사진공모전' 역시 자신만의 시선으로 일상과 순간을 포착한 학생들의 작품들로 채워지며 청소년 사진가들의 감각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번 공모전에는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신만의 시선과 언어로 진솔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된 468점의 작품 가운데 다양한 표현 방식과 주제를 담아낸 입상작 15점과 입선작 95점이 선정됐으며, 심사위원들은 기술적인 완성도를 넘어 작품 속에 담긴 이야기와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큰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고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태희 학생의 '위험물 아님'은 우연히 포착된 일상의 순간을 재치 있게 담아낸 작품이다. 아래의 '일반위험물' 표지와 그 위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

는 강아지의 대비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며 순간 포착의 매력을 잘 살려냈다. 중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아연 학생의 '친구들'은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순간을 유리 패튼을 활용한 독특한 구도로 담아내 감성적인 분위기를 완성했다. 이어 초등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민경 학생의 '우리의 대한민국'은 강한 상징성과 안정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직관적이면서도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청소년들의 시선과 감정이 담긴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표현을 제시하면서도 특유의 파스한 울림을 전했다. 자신만의 감각으로 한 순간을 기록하고 표현해 낸 작품들은 학생 사진가들만의 개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이번 공모전이 청소년들에게 일상의 순간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표현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 편집실



1 최우수-서천초등학교\_장민경\_우리의 대한민국  
2 최우수-해운대여자중학교\_김아연\_친구들 3 최우수-부산관광고등학교\_강태희\_위험물 아님

## 제40회 부산청소년예술제

# 2026 청소년 K-pop 페스티벌

2026. 5. 23.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K-POP이 세계 음악시장을 이끄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가운데, 무대 위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소년들의 열정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부산연예예술인협회(회장 안규성)가 주관한 <청소년 K-POP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가요와 댄스 부문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자신만의 개성과 실력을 선보이기 위한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댄스 부문은 10팀, 가요 부문에서는 10팀으로 총 20팀(개인 포함)이 참여했다. 대상은 「스즈메」의 음악에 맞춰 완벽한 몸짓과 빨간 페인트로 디테일한 감정까지 잘 살린 최예린(가야고등학교)과 「아사달」을 한복을 입고 섬세한 가창력과 표현력을 선보인 황서연(연제중학교)이 차지했다. 금상에는 「bruk down」을 혼자이지만 파워풀한 댄스로 빈 곳이 보이지 않는 무대를 보여준 김가은(가야고등학교)과 「텅」을 구성지게 부른 송나운(여방초등학교)에게 돌아갔다. 「네 생각」을 부른 이현승(동아공업고등학교)과 「내가 제일 잘나가 외」 K-pop 메들리로 치어리딩을 한 S.T.S.A팀에게는 은상이 주어졌다. 동상은 정아영(가락중학교), [블랙아이즈]가, 장려상은 박언진(부산남고등학교), [어라우징키즈]가 수상했다. 인기상에는 안소희(장안제일고등학교), 안예서(신어초등학교)가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뛰어난 기량과 무대에 대한 열정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단순한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자신만의 개성과 감성을 표현하며 관객과 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꿈을 품고 무대에 올라 노래와 춤으로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이번 청소년 K-POP 페스티벌은 순위를 가르는 경연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무대로 자리매김했으며, 미래 K-POP 문화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힘찬 발걸음은 꿈을 향한 도전의 서막을 열었다.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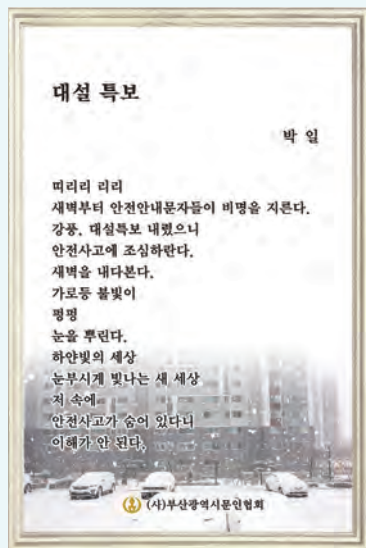
댄스 대상\_최예린(가야고등학교)



가요 대상\_황서연(연제중학교)

#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시화전)

2026. 7. 27. ~ 8. 2.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박일\_대설특보, 2025



정인호\_수필, 2025



안수현\_조금 늦어도 괜찮아, 2025

부산 문인들 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힘써온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해숙)에서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기획 전시로 시화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부산 지역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을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을 통해 문학이 지닌 감성과 공감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전시에서는 시·시조·수필·동시 등 다양한 장르의 시화 40점을 선보인다. 작품마다 담긴 글귀와 이미지들은 문학적 상상력과 시각적 감성을 함께 전달하며 관람객들이 시를 읽고 그림을 감상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내면 감정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문학이 단순히 읽는 예

술을 넘어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매개체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연출할 예정이다.

전시 기간 중 8월 1일과 2일에는 '시낭송 체험'과 '캘리그래피 시화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담아 시를 직접 낭송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시 구절을 활용해 캘리그래피 작가와 함께 부채 시화를 제작해 볼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회차별 10명씩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www.bsart.or.kr](http://www.b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있는날

# 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

2026. 7. 13. ~ 19. 부산예술회관 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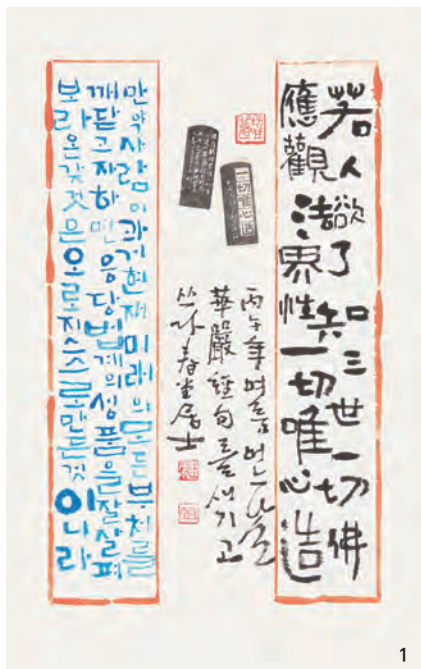
부산예술회관은 문화가있는날 기획 전시로 부산미술협회 서예분과 회원들이 참여하는 ‘부산 미술 서예작가회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회원들의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붓과 먹이 만들어 내는 조형적 아름다움과 서예에 담긴 심오한 정신성을 조명하며 전통 서예가 지닌 고유의 예술 적 가치를 현대적 감각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마련됐다.

전시는 전통적인 서예 미학을 바탕으로 고요함 속에서도 강렬한 생명력을 담아낸 작품들로 구성된다. 관람객들은 필선 하나하나에 담긴 작가의 운필과 호흡 그리고 오랜 시간 축적된 사유와 수련의 흔적을 느끼며 서예가 지닌 깊은 울림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먹의 농담濃淡과 획의 흐름, 여백의 조화는 작품마다 서로 다른 분위기와 감성을 만들어 내며 서예 특유의 미감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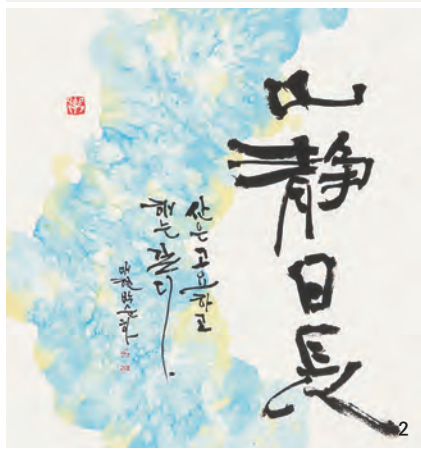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한글·한문 서예를 비롯해 전각 등 다양한 서체와 표현 방식을 아우르며 서예의 폭넓은 조형 세계를 소개한다. 총 1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예 예술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중 7월 18일과 19일에는 ‘부채에 행복 글귀 쓰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참가자들이 직접 글을 쓰며 자신만의 부채를 제작해 볼 수 있다. 회차별 10명씩 예약제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www.bsart.or.kr](http://www.bsa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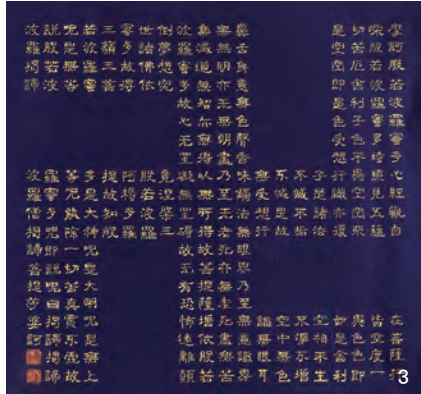
문의\_051)631-1377 / 편집실



1



2



3



4

- 1 이황우 2 박순하
- 3 정인동 4 조상래

## 전국국악경연대회 제33회 부산국악대전

2026. 6. 6. ~ 7. 부산시민회관

국악 인재 발굴과 전통예술 계승을 목표로 해마다 열리는 부산국악대전이 올해로 33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기악, 가야금병창, 민요, 판소리, 무용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초중고 학생부 199명을 비롯해 일반부와 신인부 참가자 등 총 635명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일반부 종합대상인 국회의장상은 민요 부문에 출전한 심희경이 수상했다. 종합차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기악 부문 최연수(동국대학교 대학원)에게 돌아갔다. 또한 고등부 종합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한나예(민요·국립국악고 1학년)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기교보다는 기본기와 예술적 표현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작품의 이면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무대 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표현했는지를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

부산국악대전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국악을 전승·계승하고 우수한 국악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는 대표적인 국악 경연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국악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하며 지역 전통예술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의\_051)644-5211 / 편집실





부산연극제작소 동넵\_폼

1983년 시작의 도시 부산으로 돌아온 대한민국연극제

## 제44회 대한민국 연극제 부산

2026. 7. 1. ~ 26.

영화의전당,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백양문화예술회관, 가온아트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인 대한민국연극제가 '와따매! 부산'이란 슬로건으로 2010년 이후 16년만에 부산에서 개최된다. 1983년 부산에서 전국지방연극제로 개최된 이래 지역 연극의 발전과 교류를 이끌어 대한민국 연극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해온 대한민국연극제가 43년의 역사를 품고 부산으로 돌아와 한국 연극이 걸어온 길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음 장을 펼쳐 보인다.

본 개막에 앞서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는 <지역특성화 국제교류 연출가전>이 열렸다. 불가리아, 일본, 폴란드, 그리스 등 4개국 연출가와 부산 지역 극단이 공동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며 지역 연극과 세계 공연예술의 교류 가능성을 보여줬다.

공식 개막식은 7월 1일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개최된다. 개막공연으로는 창작 뮤지컬 <제祭-어, 제祭, 祭 그리고 오늘>이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연극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한 편의 공연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일제강점기 신파극

의 유입부터 대한민국연극제의 탄생과 성장에 이르기까지 한국 연극의 흐름을 무대 위에 담아내며 축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한다. 축제 기간에는 전국 16개 시도 대표 극단이 참여하는 본선 경연을 비롯해 제5회 대한민국시민연극제, 해외 및 부산·울산·경남 연합공연, 청년 연극인 레지던시 및 네트워킹 페스티벌, 아시테지 부산, 시민창작아카데미, 시민비평단, 프린지 페스티벌, 연극인 100인 토론회, 국제포럼 및 국내 세미나, 부산연극인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대한민국연극제 집행위원회는(집행위원장 이정남) “대한민국연극제가 시작된 부산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더욱 뜻깊고, 이번 축제가 대한민국 연극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동시에 세계와 연결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계기가 돼 시민과 관객들이 대한민국 연극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_051)636-3759 / 편집실



## 2026 부산국제사진제 사람 人

2026. 7. 28. ~ 8. 18.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 사상인디스테이션

세계 20개국 200여 명의 예술가가 참여하는 2026 부산국제사진제BIPF(조직위원장 나홍렬)가 '사람 人'을 주제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은 개인의 삶과 기억, 관계와 공동체, 사회적 현실에 대한 시선을 공유하며 국경과 세대를 넘어 공감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1 Xiomara Bender\_Waiting for the Rainbow 10 Years 01  
2 Xiomara Bender\_Waiting for the Rainbow 10 Years 03  
3 Nam June 4 Xiomara Bender\_Waiting for the Rainbow 10 Years 02

인간 존엄을 묻는 주제전 ‘Being Human-다시, 사람’은 7개국 14명의 국내의 사진가가 참여해 인간 존엄,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한다. 해당 전시는 ‘인간은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서 출발해 세계 곳곳의 소외와 고립 그리고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포착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인류 공동의 정신적 가치를 소개한다. 참여 작가로는 북한을 인간적인 면모와 그 삶 속에 숨어 있는 찰나의 순간을 기록한 시오마라 벤티Xiomara Bender, 미국 내 흑인을 향한 공권력의 폭력과 희생된 자식을 둔 어머니의 고통을 피에타Pietà 형식으로 재해석한 존 헨리Jon Henry 등이 참여한다.

베를린·부산·평양을 잇는 글로벌 프로젝트 ‘World\_SEQUENCES’는 글로벌 예술 네트워크 프로젝트로 15개국 35명의 예술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술가들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현대 사회의 파편화된 경험과 사건들을 하나의 ‘시퀀스 Sequence’로 연결한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기록되는 일상과 사회 변화의 풍경, 개인의 서사를 시각적으로 엮어내며 국가와 문화권을 넘어 공유되는 인간 경험의 공통성을 탐색한다.

세계 청년작가들의 시선 국제청년작가전 ‘시대공감My Dear Friends’ 부산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추진되는 전시로 7개국 15여 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한다. 청년세대의 기록을 넘어 기성세대가 만들어 온 사회 구조와 가치관을 청년이 경험하는 불안과 희망, 관계와 정체성의 문제를 다양한 사진 언어로 풀어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세대의 현실을 기록한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오픈콜 전시 ‘Hello Human’는 전 세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제 공모 전시로 100여 명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본 인간의 삶과 관계를 선보인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풍경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인물, 일상, 자연 속 인간의 모습 등 폭넓은 주제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 밖에도 2026 BIPF Special Exhibition으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비롯해 ‘자유전’, ‘BIPF 포트폴리오 리뷰 최우수 작가전’ 등 다양한 특별전이 함께 마련된다.



3



4

# 2026 부울경사진교류전

## 다양성의 조화

### Where Differences Resonate

2026. 6. 1. ~ 6. 부산시청 제1·2·3전시실

오늘날 사진은 타 예술 장르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실험적 시도가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사진 문법으로 여겨졌던 초점, 노출, 구도 등의 개념을 넘어 작가의 의도와 해석을 중시하는 예술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다층적 해석과 모호성은 현대 사진예술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처음 시작된 부울경사진교류전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과 경남의 사진가들이 교류하며 지역 사진예술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공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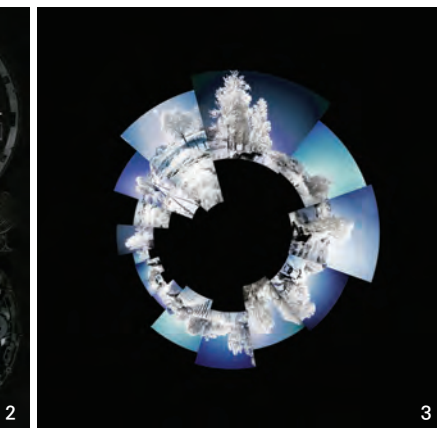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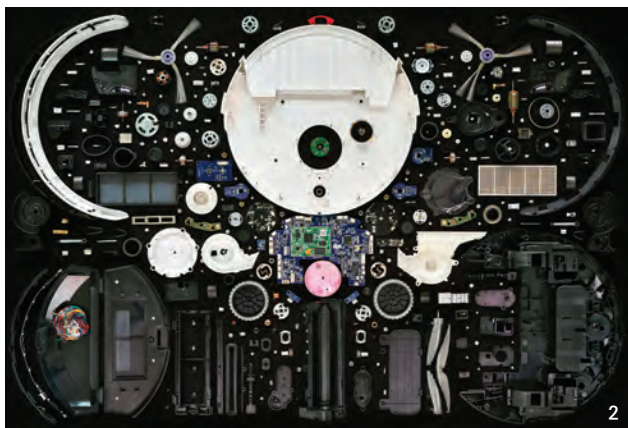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다양성의 조화: 개별적 주파수가 빚어내는 공명의 장場' '시선의 스펙트럼: 파편화된 세계의 재구성' '조화로의 이행: 공존의 미학' 등 세 개의 섹션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차이들이 서로를 응시하고

교차하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또한 각기 다른 역사와 사유가 스며든 사진적 시선이 세계를 재구성하며 미래의 감각까지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참여 작가들은 각자의 독창적인 작업을 통해 다름이 공존하는 방식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가치들을 제시하며, 불확정적인 현대 사회를 포용하는 예술적 실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는 부산에서 김동준, 김홍희, 문진우, 박정임, 뿌리야김, 이계영, 이동근, 정금희, 최경현 작가가 참여했다. 울산에서는 권일, 송무용, 조원재, 조춘만, 최원준 작가가, 경남에서는 김관수, 김동철, 김상환, 김호중, 박덕률, 조성제 작가가 함께해 지역 사진예술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문의\_051)888-5041 / 편집실



1 문진우(부산) Shell-Visible and Invisible 경계의 확장, 75x60cm, Pigment print, 2024  
2 조춘만(울산) 로봇정소기, 110x165cm, Pigment print, 2024  
3 김관수(경남) 환상원형, 70x60cm, 파인아트디지털인크젯프린트, 2026

# NAC Summer Orchestra Festival

## 부산의 여름, 오케스트라로 물들다

2026. 7. 3. ~ 26. 낙동아트센터 콘서트홀



부산청년오케스트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예술로 채워 온 낙동아트센터(관장 송필석)가 올해 영남권 최초 지역 민간 오케스트라 축제인 <NAC@2026 지역민간교향악축제 NAC Summer Orchestra Festival>를 7월 한 달여간 총 7회에 걸쳐 개최한다. 부산의 민간오케스트라는 지역에서 꾸준히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고 있음에도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낙동아트센터는 이러한 지역 예술단체들이 시민들과 접점을 넓히고 더 많은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지역 예술단체가 하나의 브랜드 아래 연합형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 낙동아트페스티벌오케스트라NAFO\_7.3.(금) 오후 7시 30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다단조 Op.18」과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8번 사장조 Op.88, B.163」을 선보인다. 낭만주의 정수를 보여주는 라흐마니노프와 자연에 대한 생명력과 서정성을 담은 드보르자크의 교향곡이 어우러져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다. 낙동아트페스티벌 오케스트라는 부산·경남 지역의 우수 음악인과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와 함께하는 전문 오케스트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향하며 시민에게 폭넓은 클래식 음악의 감동을 전하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백진현이 지휘를 맡고 피아니스트 아리스토 샴<sup>Aristo Sham</sup>의 협연으로 진행된다.

#### KNN방송교향악단\_7.5.(일) 오후 5시

엘가의 「첼로 협주곡 마단조 Op.85」와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제6번 비창」을 선보인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은 깊은 서정성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며, 차이콥스키의 마지막 교향곡인 「비창」은 인간 내면의 고뇌와 열정을 담은 걸작으로 꼽힌다. KNN방송교향악단은 부산·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클래식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공연은 서희태가 지휘를, 엘가 첼로 협주곡은 첼리스트 홍승아가 협연한다.

#### 지역민간교향악축제 특별초청공연

#### 고잉홈프로젝트\_7.9.(목) 오후 7시 30분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1번 바단조 Op.10」을 선보인다. 재즈와 클래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거슈윈의 대표작과 쇼스타코비치의 개성이 돋보이는 교향곡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음악적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역민간교향악축제 특별초청공연으로 선보이는 <고잉홈프로젝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출신 음악가들과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은 음악가들이 함께 모여 결성한 오케스트라다. 음악감독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가 맡고, 거슈윈의 피아노 협주곡은 피아니스트 손열음의 협연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_7.16.(목) 오후 7시 30분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몰다우」,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Op.26」,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제2번 라장조 Op.43」로 구성했다. 체코의 자연과 민족적 정서와 낭만주의 북유럽의 장대한 서정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산네오파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느리지만 곧게, 최고 수준의 음악'을 추구하며 꾸준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부산의 대표 민간 오케스트라다. 이번 공연은 홍성택이 지휘를 맡고 바이올리니스트 진영훈과 협연한다.

낙동아트페스티벌오케스트라



####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_7. 19.(일) 오후 5시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Op.84」를 시작으로 「피아노 협주곡 제5번 내림마장조 Op.73 황제», 「교향곡 제3번 내림마장조 Op.55 영웅」을 선보인다. 자유와 인간 존엄에 대한 이상을 담아낸 서곡과 웅장한 규모의 협주곡, 혁신적인 음악 언어로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연 베토벤 음악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다. 가야심포니오케스트라는 경남·부산·울산 지역의 젊은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 연구와 해석을 통해 폭넓은 레퍼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효상이 지휘를 맡고 피아니스트 서형민과 협연한다.

####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_7. 23.(목) 오후 7시 30분

화려한 기교와 풍부한 서정미가 돋보이는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Op.35」와 낭만주의 음악의 정수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제2번 마단조 Op.27」를 통해 러시아 음악 특유의 깊은 감성과 웅장한 선율을 만난다. 유나이티드코리아오케스트라는 소아암과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으로 희망을 전하고자 2006년 창단된 오케스트라로, 공연 수익금을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등 음악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이병욱의 지휘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윤희와 협연한다.

#### 부산청년오케스트라\_7. 26.(일) 오후 5시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Op.62」, 슈만의 「첼로 협주곡 가단조 Op.129」,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 K.550」을 선보인다. 베토벤의 강렬한 극적 긴장감으로 시작해 슈만 특유의 서정성과 섬세한 감성이 담긴 첼로 협주곡과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후기 교향곡인 제40번까지 각기 다른 시대와 개성을 지닌 작품들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부산청년오케스트라는 지역 출신의 청년 음악가들을 발굴하고 교육하여 전문 음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오케스트라로 청년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무대 경험과 연주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이동신이 지휘를 맡아 첼리스트 양진우와 협연한다.

문의\_051)970-2771 / 편집실



손열음

KNN방송교향악단



# 굿GOOD 보러가자 부산

2026. 7. 25. ~ 26.

부산 벅스코 야외광장, 오디토리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논의하기 위해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는 올여름, 한국 전통예술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된다. <굿GOOD보러가자 부산>은 한국인의 삶과 함께 이어져 온 국가무형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으로, 전통예술이 지닌 원형의 가치와 오늘날의 확장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다.

2004년 시작된 <굿보러가자>는 전국을 순회하며 우리 전통예술의 매력을 소개해 온 대표 장수 공연이다. 올해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벅스코 오디토리움을 찾아 국내외 관객과 만난다. '하나의 무대, 한국 예술의 모든 것One Stage, All K-Arts'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인과 예인 120여 명이 참여한다. 공연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판소리와 시나위, 동래학춤, 줄타기, 농악 등 한국 전통예술의 다양한 면모를 차례로 펼쳐 보인다. 엄숙하고 장중한 궁중



음악부터 흥겨운 연희와 공동체적 에너지가 살아있는 농악까지, 한국 전통예술이 지닌 다채로운 결을 한 무대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종묘제례악과 판소리, 남사당놀이, 농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종목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랜 세월 전승되어 온 전통예술을 눈앞에서 만나는 경험은 물론, 국악 크로스오버 무대를 통해 전통이 현대와 만나는 새로운 멋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부산 시민들에게는 국가무형유산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은 약 1,700석 규모로 마련돼 보다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이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전날인 7월 25일에는 벅스코 야외광장에서 길놀이와 줄타기, 판굿 등으로 구성된 야외 공연으로 보다 자유롭고 친근한 방식으로 한국의 전통연희를 즐길 수 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라면, <굿GOOD보러가자 부산>은 그 문화유산이 현재에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무대다. 세계가 주목하는 부산에서 펼쳐질 이번 공연이 한국 전통예술의 깊이와 흥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_02)3011-1720 / 편집실

1 구미무용농악보존회\_농악 2 국립부산국악원\_종묘제례악 3 우리소리 바라지\_시나위





## 현대미술의 혼돈과 북한미술의 역설... 문범강 교수 특별강연 개최

2026. 5. 29. 경성대학교

경성대학교와 KEA Foundation은 지난 5월 29일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문범강 교수를 초청해 '현대미술의 혼돈과 북한미술의 역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예술인과 미술 애호가들의 미술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북한미술의 독자적 예술세계를 함께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1부의 첫 번째 강연인 '현대미술, 찬란한 혼돈-무엇이 이 혼돈을 지탱하는가'에서는 현대미술을 둘러싼 제도와 자본, 비평, 예술가의 실험정신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오늘날의 미술 환경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다.

문 교수는 현대미술의 특징으로 하나의 지배적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매체 간 경계가 붕괴한 점, 표현 중심에서 개념 중심으로 이동한 점을 꼽았다. 그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미술의 전환점으로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를 지목했다. 그 이전까지 국제미술계는 뉴욕, 파리, 런던 등 서구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유지했으나, 냉전 체제의 해체 이후 동유럽과 러시아, 쿠바, 남미, 아프리카, 중동, 중국 등 다양한 지역의 목소리가 국제 미술 담론 안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과거 주변부로 인식되던 지역 미술이 글로벌 담론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미술계의 지형 또한 급격하게 변화했다.

아울러 국제 컬렉터와 금융자본의 확대 속에서 아트페어와 비엔날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미술계가 기존의 서열 중심 구조에서 복합적인 네트워크 체계로 재편되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회화 중심의 표현 방식은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디지털미디어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회화 역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새롭게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

강연에서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들도 소개됐다. 이란 출신의 쉬린 네샤트와 세르비아 출신의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를 비롯해 독일의 게르하르트 리히터, 안젤름 키퍼, 미국의 리처드 세라, 제프 쿤스 등이 언급됐다. 또한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YBA) 그룹의 등장을 통해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을 설명했다.

동양권에서는 같은 해 발생한 천안문 광장 시위 이후 국제무대에서 부상한 중국 현대미술에도 주목했다. 문 교수는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웨민진, 팡리진, 장샤오강, 차이귀창 등을 소개하며 세계 미술계에서 중국 현대미술이 형성해 온 영향력을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 뉴욕에는 2천 개가 넘는 화랑이 운영될 정도로 거대한 예술 생태계가 형성되었다며 비평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시장 중심의 아트페어, 동시대 담론을 생산하는 비엔날레 그리고 현대미술의 연구와 실험을 주도하는 도큐멘타를 예로 들며 현대미술 시스템의 구조를 설명했다.

부산 출신 작가로는 안창홍이 소개됐다. 문 교수는 끊임없는 실험과 도전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안창홍의 작업을 조명하며, 조만간 뉴욕에서 예정된 전시 소식도 함께 전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북한미술의 역설-집요한 단순’을 주제로 북한미술의 구조와 미학을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문 교수는 북한미술을 체제 유지와 이념 선전이라는 명확한 목적 아래 발전해 온 예술로 규정하면서도, 단순한 프로파간다를 넘어서는 조형적 성취와 예술적 탐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0년대 초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조선회를 처음 접한 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9차례 평양을 방문해 만수대창작사, 백호창작사, 삼지연창작사, 중앙미술창작사 등을 직접 찾아 작가들을 인터뷰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동양화 기법으로 인물을 표현한 조선화에는 시적이고 낭만적인 정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상이 북한미술 연구에 몰두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조선화’라는 장르가 북한식 한국화를 의미하지만, 단순한 수묵채색화에 머물지 않고 대형 집체창작과 독창적인 기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외부 미술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발전한 북한미술은 프로파간다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의 독특한 사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작가들이 보여주는 사실주의적 표현에 대한 집요함과 높은 완성도는 예술적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취라고 평가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후 2부에서는 문범강 교수와의 ‘예술의 경계를 넘어’ 간담회가 마련됐다. 문범강 교수는 화가로서 서울의 일민미술관, 워싱턴의 아메리칸대학미술관, 뉴욕의 스틱스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지의 미술 비평과 CNN의 인터뷰로 조명받았다. 현재 북한미술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2016년 미국 American University Museum 북한미술전시 큐레이터를 맡아 국제사회에 북한미술을 소개하고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The Enigmatic World of Chosonhwa, Contemporary North Korean Art: The Evolution of Socialist Realism』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북한미술 담론을 확장해 왔다.

/ 편집실

## 기획특집 |

### 예술도시 부산, 새로운 시대:

#### 부산 문화정책과

#### 부산오페라하우스

특집 | 1 '전재수 시장' 부산 문화정책의 변화와 과제\_정달식

특집 | 2 부산오페라하우스, 세계를 향한 꿈과 지역을 품는 지혜\_김지호

특집 | 3 부산 문화, 세계 속에 우뚝 서느냐 '존뜨기 수준'에 머무르느냐\_심수화

지난달 부산 문화예술계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공연과 관련한 이탈리아 라 스칼라 초청 논란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는 부산시장 후보들의 문화정책 공약과 비전이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부산 문화예술의 미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운 시정을 맞은 부산시는 현재 민선 9기 문화정책 수립을 앞두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향후 부산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과 비전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형 문화시설 조성은 물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 교육 확대, 청년 예술인 지원 등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북항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자리할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운영 방향과 역할 역시 중요한 정책 의제로 떠오른다. 이번 기획특집에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부산 문화정책의 과제와 비전을 살펴보고,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전망을 통해 예술도시 부산의 미래를 함께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 ‘전재수 시장’

### 부산 문화정책의 변화와 과제

흔히 지역 문화정책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할 때 ‘벌바오 효과’가 종종 언급되고 한다. 세계적인 건축물 하나가 도시의 운명을 바꾸고,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서사는 매력적이다. 그러나 현실의 문화정책은 랜드마크 건물 하나를 세우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문화는 도로나 교량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고, 지역의 정체성

을 키우며, 공동체의 기억을 축적하는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그래서 문화정책은 무엇을 만들었는가보다 어떤 철학으로 지역의 문화적 미래를 설계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6·3 지방선거는 부산 문화예술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박형준 전 부산시장의 문화정책 방향은 세계적 문화기관과 콘텐츠를 적극 유치해 도시 브랜드와 문화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었다. 풍피두센터 부산 분관 추진, 해외 유명 건축가를 활용한 특별건축구역 사업, 그리고 라스칼라 극장의 <오텔로> 개관 공연 추진까지, 그 흐름은 하나로 이어진다.

하지만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문화체육예술 공약은 지난 4년간의 시정과와는 분명 다른 방향, 다른 결을 보여준다. 전 당선인은 문화예술과 관광을 도시 경쟁력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되, 대규모 시설 중심이나 외부로부터의 콘텐츠 유치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지을 것인가'보다 '누가 문화를 만들고 누가 누릴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문화행정의 철학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 당선인이 제시한 문화예술 공약을 보면 그 방향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청년 예술인과 창작자 육성, 관광 창업 생태계 조성, 원도심·북항·해양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야간관광도시 구축, 시민 참여형 문화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청년 예술인 지원이다. '예술 부산 3.0'을 통해 예술인 기본소득과 주거 지원, 창작공간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 부산 3.0'으로 청년 문화패스와 시니어 문화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을 단순한 소비가 아닌 산업으로 접근하려는 시도 역시 눈에 띈다. AI 영화영상센터를 건립해 한국형 영화영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 기반 창작도구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들이 강습과 공연, 창작물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AI가 시민과 연결해 주는 문화예술 플랫폼 구상도 내놓았다. 시민은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고 예술인은 새로운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산 문화예술계가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화려한 문화행사와 시설은 늘어났지

만 창작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예술인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런 점에서 창작자와 시민을 직접 연결하고 문화산업의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접근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관광 정책 역시 기존과 결이 다르다. 부산은 그동안 국제 행사와 축제, 해운대 중심 관광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 왔다. 반면 전 당선인은 원도심과 북항, 해양자원을 연결한 체류형 야간관광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소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양수도 부산 완성 전략, 글로벌 문화관광 브랜드 육성까지 더해지면서 문화와 관광, 도시 브랜드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으려는 구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새로운 정책과 기존 사업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전 당선인은 풍피두센터 부산 분관과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공연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 역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풍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에는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초청 공연에는 3일간 105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시민 세금의 효율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프랑스 풍피두센터

그러나 문화정책은 종종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가 더 어려운 영역이다. 풍피두센터나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다. 이미 수년 동안 행정력과 예산, 도시계획이 집중된 사업이며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전략과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재검토는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안 역시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체육 정책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나타난다. 전 당선인은 사직야구장을 청년문화와 생활체육 중심 공간으로 재편하고, 대신 북항에 개폐식 돛구장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야구 도시 부산의 상징성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구상이다. 하지만 북항 부지 확보에만 6,3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국비 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새로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검증과 재원 조달 방안이 먼저 설득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하나의 과제는 재원이다. 예술인 기본소득과 창작공간 지원, 문화패스 확대, AI 영화영상센터 건립, 북항 돛구장 조성 등은 모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문화예술 예산을 어디에 우선 배분할 것인지, 어떤 사업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문화도시는 건물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람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정책은 둘 중 하나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훌륭한 인프라는 문화생태계를 키우고, 건강한 문화생태계는 인프라의 가치를 높인다. 부산이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두 영역을 균형 있게 연결하는 전략일 것이다.

6·3 지선 이후 부산 문화예술정책의 핵심 변화는 특정 사업의 존폐에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설에서 사람으로, 행사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으로, 보여주기식 성과에서 시민의 체감 가치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재수 시정이 제시한 방향 전환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부산의 문화생태계를 바꾸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답은 향후 4년이 증명하게 될 것이다.

글\_정달식 부산일보 논설위원

---

## 부산오페라하우스, 세계를 향한 꿈과 지역을 품는 지혜

---

한동안 부산예술계를 뜨겁게 달궜던 '라 스칼라 오페라단 초청 105억 원' 논란도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전재수 당선인의 예술문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논쟁은 부산예술계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2008년 5월 부산시와 롯데그룹 간의 기부 약정(1,000억 원)으로 시작된 부산오페라하우스 사업은 초기부터 적지 않은 논란 속에 출발했다. 부산시는 부지 확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사업을 추진했고, 롯데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조달 계획 또한 불분명해 사업은 여러 차례 난항을 겪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착수한 오페라하우스 사업은 약 18년 동안 시행과 중단을 거듭한 끝에 현재 북항재개발지역의 랜드마크이자 지역 예술문화 건축의 상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2027년 9월 개관 예정인 부산오페라하우스에는 현재까지 2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 투입됐으며, 향후 연간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수백억 원 규모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수많은 논란과 우여곡절을 거친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건립 과정을 지켜보며 지역 예술인들은 예술의 종합체라 할 수 있는 오페라에 대한 기대와 포부를 품어 왔다. 또한

오페라하우스가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오페라를 접할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개관을 앞두고 개관작 선정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부산 예술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할 공연장의 개관 프로그램으로 이탈리아 라스칼라 극장의 오페라 <오텔로>가 예정되고, 3회 공연에 약 10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음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연간 약 80~90억 원, 국립오페라단이 약 190억 원의 예산을 운영에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3회 공연에 105억 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격이다. 논란은 자연스럽게 ‘입찰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가’, ‘라스칼라의 한 차례 방문만으로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오페라 극장과 단체는 수없이 많다. 독일의 베를린 국립오페라 Staatsoper Unter den Linden, 오스트리아의 빈 국립오페라 Wiener Staatsoper, 프랑스의 파리 국립오페라

Opéra National de Paris,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Metropolitan Opera 등은 각국을 대표하는 세계 정상급 오페라 기관으로 손꼽힌다. 그렇기에 우리는 ‘왜 하필 라스칼라여야 하는가, 선정 과정은 충분히 공정했는가, 이번 공연을 이끌 핵심 성악가와 지휘자는 누구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조건적인 반대만이 정답은 아니다. 만약 이번 사업이 부산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부산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 공간이자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과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할 수 있다면 그 방향성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수많은 의구심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부산오페라하우스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다시 들여다보면,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이므로 세계적인 예술가만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주장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오페라하우스를 운영하는 관계자들 또한 모두 세계적인 수준이어야 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이 논란의 핵심에는 결국 지역 예술인에 대한 배제와 홀대



부산오페라하우스

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부산콘서트홀에서 지역 음악가들의 초청 공연이 사실상 전무한 현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공 문화시설이 지역 예술인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공존하고 상생할 것인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할 과제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러한 환경은 결국 지역의 청년 예술가들을 서울로 향하게 만들고, 부산 예술문화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부산의 우수한 오페라단들 역시 지역에서 활동의 한계를 체감하며 거점을 옮기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무대에 다양한 아마추어 단체들이 함께 공연하고 멘토와 멘티 역할로 상생하며 나아갈 방안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또 부산 예술인을 30%이상 수용하는 커터제 등의 정책도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예술인들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부산을 떠나지 않고도 창작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이제 육중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넘어 부산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수준의 제작극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당장 2028~2030 시즌 운영계획 수립을 비롯해 전문 인력 양성, 후원 체계 구축, 기부금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여기에 국립오페라단의 상주 및 협력 운영 문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한 찬반의 소모적 논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세계적 위상 확보와 지역 예술생태계 육성이라는 두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부산오페라하우스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부산

문화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술계, 시민사회 모두의 역량과 지혜가 모아져야 할 시점이다.

부산의 새로운 출발을 맞아 부산오페라하우스가 세계적인 랜드마크라는 하드웨어와 우수한 시스템, 콘텐츠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까지 두루 갖춘 예술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넘어 지역 예술인들이 꿈을 키우고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그것이 결국 부산을 살리고 사람을 지키는 또 하나의 문화적 해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_김지호 테너

## 부산 문화, 세계 속에 우뚝 서느냐 ‘춘뜨기 수준’에 머무르나

### 왜 지금 부산에 거시적 문화 인프라가 필요한가

도시의 생존과 발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도시는 도로, 항만, 공장용지 같은 물리적 생산 기반(生産基盤)을 얼마나 신속하고 거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成敗)가 갈렸다. 부산은 그 시대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해온 도시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의 성장 엔진이 감속하고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다중 위기(多重危機)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정식(成功方程式)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도시는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空間)을 넘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解答)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文化)와 예술(藝術)은 더 이상 도시 경제가 성장한 뒤에 고려해도 좋은 사치재(奢侈財)나 부수적인 변수(變數)가 아니다. 그것은 도시의 정체성(正體性)을 규정하고, 글로벌 인재(人材)와 자본(資本)을 끌어들이며, 궁극적으로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상수(常數)이자 핵심 전략(核心戰略) 가치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화한 해양성(海洋性)

기후 그리고 해운대와 광안리로 대변되는 사계절(四季節) 해양 레저 환경은 부산이 가진 천혜의 관광 자산이다. 이러한 기후적·지리적 매력 덕분에 부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位相)을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하지만 자연이 준 선물(贈物)과 기존의 대중 관광 상품만으로는 급변하는 글로벌 도시 간 경쟁에서 지속가능한 우위(優位)를 점할 수 없다. 기후적 강점과 해양 자원이라는 하드웨어 위에 세계인을 매료시킬 '거시적(巨視的) 문화 인프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완벽히 결합할 때, 부산은 비로소 단순한 '여름철 휴양지(休養地)'를 넘어 사계절 내내 문화적 필요로움이 넘쳐나는 세계적 수준의 '복합 관광(複合觀光) 메카'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건립 중인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추진 중인 풍피두 센터 부산 분관을 둘러싼 논쟁(論爭)은 단순히 하나의 문화 시설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글로벌 해양 문화도시(海洋文化都市)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한반도 동남권(東南圈)의 쇠락(衰落)하는 지방 도시 중 하나로 남을 것인가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岐路)다. 2,5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하드웨어의 적정성(適正性)을 따지는 비판(批判)과 토론(討論)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다. 하지만 그 논의의 초점(焦點)이 인프라 자체의 무용론(無用論)이나 단기적인 예산 소모(豫算消耗)에만 함몰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왜 지금 부산에 이 거대한 문화 공간이 필요한가”라는 ‘거시적 당위성(巨視的 當爲性)’이며,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와 지역의 ‘자생적 역량’이 결합하는 용광로(鎔鑪)로 만들 것인가이다.

지정학적(地政學的) 관점에서 볼 때,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만나는 관문(關門)이다. 물류(物類)와 비즈니스의 중심지라는 하드웨어에 걸맞은 소프트웨어, 즉 세계인들이 찾아와 머물고 교류하고 싶어 하는 문화적 매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완전한 국제도시(國際都市)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문화적

랜드마크는 도시의 품격(品格)을 높이고 시민의 자부심(自負心)을 제대로 고취하게 만드는 매개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 교수는 저서 『도시의 승리: 어떻게 우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우리를 더 부유하게, 더 똑똑하게, 더 푸르게,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에서 다음과 같이 도시의 본질(本質)을 짚었다.

“도시의 경쟁력은 더 이상 공장의 굴뚝 개수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도시가 보유한 문화적 다양성과 예술적 깊이 그리고 창의적 계층을 끌어들이는 매력의 총합이다.

The competitiveness of a city is no longer measured by the number of factory chimneys it possesses. It is the sum of the city's ability to retain and attract the creative class, its cultural diversity, and its artistic depth.”

뉴욕의 링컨 센터(Lincoln Center)나 런던의 사우스뱅크(Southbank)가 단순한 공연장 모음이 아니라 그 도시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처럼, 부산 북항(釜山北港) 재개발 구역에 들어설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부산의 미래를 상징하는 시각적·문화적 이정표(里程碑)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잡음(雜音)과 갈등(葛藤)은 이 거대한 전환점(轉換點)을 통과하기 위한 진통(陣痛)일 뿐, 인프라 확충(擴充)이라는 대전제 자체를 흔드는 동력(動力)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화 자본의 축적이 부족한 도시는 장기적으로 인적 자원의 고갈(枯渴)을 피할 수 없다.

## 선거철 정치 공방으로 전락한 문화 전략의 위기

최근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개막작(開幕作) 선정과 풍피두 Centre Pompidou 분관(分館) 유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화계(文化界)와 정치계(政治界)의 격렬한 대립은, 안타깝게도 6월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타임라인을 거치면서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여야 후보 간의 주도권 싸움과 선거철 특유의 선전 선동(宣傳 煽動) 속에서, 정작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건설적인 운영 전략(運營 戰略)과 거시적 도시 발전 계획은 실종되고 자극적인 구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호口號만 난무한 형국이었다. 1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탈리아의 라스칼라La Scala 오페라 극장의 개관 공연 초청 계획을 두고 지역 예술인을 배제한 혈세 낭비血稅浪費라는 비판이 제기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세계적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맞선다. 풍피두 분관 역시 매년 감당해야 하는 브랜드 사용료使用料와 운영비運營費 부담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정치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의 연속성連續性이 위협받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문화 인프라 사업이 쟁점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지금의 논란은 본질本質을 비껴가고 있다. 문화 예술 정책이 선거철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대결이나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쟁政爭의 도구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문화계로 돌아간다. 예술 공간을 짓고 운영하는 일은 최소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眼目과 일관된 철학哲學이 필요한 '거시적 기획'이다. 정권政權이 바뀌고 시장市長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뒤흔들리고 전면 재검토된다면, 그 어떤 세계적인 문

화 단체도 부산을 신뢰信賴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부산 문화와 관광의 완성은 도시의 풍경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 부산 사람들은 복잡한 상황에 부닥치면 “앗따 마, 고마(그만)해라!”라는 표현으로 단순명료單純明瞭하게 정리해 버린다. 그래서 외지인들은 부산 사람들의 기질을 ‘화끈하다’, ‘직설적이다’라고 평가한다. “마, 고마해라!”라는 이 말투는 투박하고 길 보기엔 무뚝뚝해 보일지 몰라도, 속정이 깊고 시원시원해서 부산 사람들의 매력으로 꼽힌다. 길을 물어보면 가던 길을 멈추고 직접 데려다줄 정도로 ‘묵직한 정情’이 넘친다. 야구장이나 축제 현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발적인 응원 문화와 에너지는 도시 전체에 생동感生動感을 불어넣으며, 이런 분위기가 여행자旅行者들에게는 부산이 거대한 매력덩어리이자 거대한 관광 요소로 작용한다. 부산 사람 특유의 화끈하고 역동적인 기질은 도시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었지만, 가끔은 타오르는 감정적 대립으로 이어져 장기적 정책 추진의 발목

을 잡기도 한다. 다혈질적이고 선 굵은 에너지가 선거철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면 ‘합리적合理的인 토론’은 사라지고 ‘극단적極端的인 진영 논리’만 남게 된다. 투박하면서도 시원 시원한 성정性情은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순기능順機能을 하지만, 백년대계인 문화 전략만큼은 냄비 끓듯 하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한 걸음 물러나 냉철한 이성理性으로 다루어야 한다. 불같이 뜨거운 열정을 도시 발전을 위한 생산적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순간의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것은 도시 전체의 비극이다.

정치가권이 눈앞의 당리당락黨利黨略과 표票 계산에 매몰되어 ‘공적公的인 대계大計’를 흐르는 모습은, 일찍이 한비韓非가 『한비자韓非子』 「삼수三守」 편에서 경고한 대신大臣들의 행태와 궤를 같이한다. 한비는 신하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세를 부리면 “법도와 장기적인 제책이 무너져 내린다法度長策崩潰”라고 일갈했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다뤄져야 할 백년대계인 한 도시의 문화 전략文化戰略이 선거철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국가와 도시의 장기적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하는지를 2,300년 전의 석학 한비는 이미 꿰뚫어 본 것은 아니었을까?

부산시장 당선자는 물론 그자의 곁에서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문화전략가文化戰略家’가 있는지, 지금 상황에서 부산 시민은 궁금해한다. 눈앞의 표를 의식해 지역 예술계의 정서情緒에만 영합하거나, 반대로 외형적인 성과成果에만 급급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무비판적으로 수입하려는 태도 모두 위험하다. 지금의 논란을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문화 인프라를 정쟁의 대상에서 과감하게 제외하는 ‘문화 협치文化協治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 개통과 운용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부산 시민 전체의 자산資產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이 인프라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 중심의 냉철한 이성적 접근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분관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해외의 성공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한 하드웨어의 승리가 아니라, 철저한 거시전략巨視戰略과 정교한 소프트웨어 운영이 만들어낸 결과물結果物이기 때문이다.

첫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Sydney Opera House는 문화 인프라가 어떻게 변방邊方의 도시를 세계적인 메카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고전적이고 강력한 예시다. 1973년 개관 당시, 이 건축물은 엄청난 공사비工事費 초과와 공기工期 지연으로 인해 호주 사회 전체의 극심한 비난과 정치적 공방에 시달렸다. 초기 예산의 14배가 넘는 재정財政이 투입되자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개관 이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호주의 상징象徴이 되었으며, 호주 경제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유무형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단순한 관광 명소에 머물지 않고, 오페라 오스트레일리아Opera Australia와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Sydney Symphony Orchestra 등 자국 최고 수준의 예술 단체들을 상주시키며 끊임없이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는 ‘살아 있는 문화 생태계’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둘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Bilbao은 이른바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라는 신조어新造語를 탄생시키며, 문화 시설 하나가 쇠락한 산업 도시의 운명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Basque Country의 철강·조선 산업 붕괴로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던 빌바오는 유치 비용과 건축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구겐하임 분관을 유치했다.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바오는 전 세계 도시 계획가들과 문화 예술계가 가장 주목하는 ‘도시 재생Urban Regeneration의 교과서’ 같은 공간이다. 빌바오는 초기에는 굶주린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미술관에 돈을 탕진한다는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

으나, 1997년 개관 이후 단 3년 만에 투자비(投資費)를 전액 회수하는 기적(奇蹟)을 연출했다. 과거 빌바오는 철강업과 조선업으로 번창했던 공업 도시였지만 1980년대 후반 제조업이 붕괴하면서 실업률(失業率)이 치솟고, 도시의 젖줄인 네르비온(Nervion) 강이 산업 폐수(産業廢水)로 썩어가는 등 심각한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빌바오 제안자들은 과감하게 ‘문화와 디자인’을 처방전으로 내세웠다. 세계적인 현대미술관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Guggenheim Museum Bilbao)을 유치(誘致)하면서 도시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미술관 하나가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도시를 부활시켰는데, 이를 두고 전 세계는 ‘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철강 냄새 자욱하던, 쇠락한 공업도시인 빌바오가, 거장(巨匠)들의 건축물과 미술 그리고 정갈한 미식(美食)까지 흐르는 최고급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완벽하게 체질 개선했다. ‘혁신(革新)의 상징’으로 꼽히고 있다. 미술관의 설계자인 프랭크 게리(Frank Gehry(1929~))는 저서 『건축과 도시 부흥(Architecture and Urban Renaissance)』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빌바오 구겐하임은 단순히 미술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전 세계의 시선(視線)을 한곳으로 모으는 거대한 경제적 촉매제(觸媒劑)이자, 쇠락해 가던 도시의 영혼을 소생시킨 인류학적 사건이다.”

셋째, 루브르 아부다비(Louvre Abu Dhabi)는 막대한 자본력과 세계 최고 문화 브랜드의 결합이 만들어낸 현대적 모델이다. 아랍에미리트(UAE)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한 국가 전략의 하나로 사디아트 문화지구(Saadiyat Cultural District)를 조성하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30년간 총 13억 달러(한화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브랜드 사용료와 소장품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7년 분관을 개관했다. 아랍에미리트의 ‘거시적 국가 전략’과 프랑스의 ‘문화적 자존심’이 결합하여 탄생한 ‘현대 지정학적 문화 마케팅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막대한 비용 부담에 대한 비판을 뛰어넘어, 중동(中東)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숨에 글로벌 문화 지도의 중심축(中心軸)으로 진입하는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적 자산과 중동의 자본이 만나 사막 위에 피워낸 이 미술관은 이제 전 세계 고액 자산가들과 문화 예술 애호가들을 아부다비로 끌어들이는 핵심 엔진이 되었다. 중동의 일개 석유 부국(石油富國)이자 ‘기름값으로 움직이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단숨에 탈피할 수 있었다. 또 개관 이후 매년 100만 명 안팎의 전 세계 여행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 이상이 해외 순수 관광객이다. 특히 프랑스, 중국, 인도, 독일 등지에서 전세기(專賃機)를 타고 오는 고부가가치 문화 관광객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단순 경유지(經由地)였던 아부다비를 2~3일 이상 머무는 ‘체류형(滯留型) 관광도시’로 체질을 바꾸면서 지역 내 호텔, 외식, 항공(에티하드 항공) 등 전방위적 경제 연쇄 효과를 촉발했다. 또한 서구(西歐) 중심의 ‘문화 권력(文化權力)’을 중동으로 끌어옴으로써 아랍권의 문화적 자부심(自負心)을 고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에 구축된 어린이 미술관과 교육 인프라를 통해 UAE 차세대 인재인(人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각 예술을 안방에서 향유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 장기 교육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퐁피두 센터의 말라가(Málaga) 및 상하이(Shanghai) 분관 사례는 부산이 추진 중인 퐁피두 분관 사업에 직접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스페인의 중소 항구도시였던 말라가는 2015년 퐁피두 분관을 유치하면서 피카소의 고향이라는 전통적 자산에 현대미술의 역동성(力動性)을 더해 유럽의 새로운 문화 거점으로 거듭났다. 말라가 분관은 2015년 개관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최근 계약을 2034년까지 10년 더 연장했다. 2015~2024년까지는 연간 207만 유로(한화 약 30억 원)였으나, 2025~2034년까지 10년간은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연간 270만 유로(40억 원)~310만

유로(46억 원)로 비용이 증액되었다. 중국 상하이 역시 2019년 서안미술관 西岸美術館, West Bund Museum 내에 퐁피두 센터 분관을 개설하며 글로벌 미술계의 이목耳目을 집중시켰다. 매년 일괄 지급 Lump sum 방식과 브랜드 사용료를 나누어 계약했으며, 연간 지불 총액은 약 415만 유로(한화 약 61억 원) 수준이다. 이들 도시가 적지 않은 브랜드 사용료와 운영 비용 논란 속에서도 분관 유치를 감행한 이유는, 단순한 이름값뿐만 아니라 파리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미술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기획 지도를 받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미술 콘텐츠를 자국 안방으로 즉시 가져옴으로써 도시의 문화적인 격조格調를 단숨에 끌어올리고 글로벌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선점先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利益이라는 고도의 계산計算이 깔려있다.

#### 상생과 도약을 위한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건설적 운용 방향

해외의 성공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敎訓은 명확하다. 하드웨어를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을 채울 소프트

트웨어의 질質과 이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운영 체계다. 현재 부산 문화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외 예술 단체 및 콘텐츠 유입에 대한 우려憂慮와 반발反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지역의 한정된 예산이 해외 유명 단체의 일회성 공연에 집중될 경우, 정작 적박한 환경에서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소외疏外되고 성장成長의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은 지극히 현실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 유입 자체를 원천 봉쇄封鎖하고 지역 예술인들만의 무대로 채우는 폐쇄적閉鎖的 민족주의나 지역주의로 흘러가서는 결코 미래未來가 없다. 문화적 고립孤立은 예술 생태계의 질적 저하質的低下를 초래할 뿐이다.

부산 사람들의 거칠 것 없고 화끈한 기질氣質은 외부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융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겉으로는 투박해 보여도 한 번 마음을 열면 끈끈한 정情으로 묶이는 부산 특유의 포용성包容性은, 강력한 외부의 자극刺激과 만났을 때 독창적인 로컬 문화를 창조創造해 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개항기 이래 수많은 문화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와 부산만의 색깔로 재해석되었듯, 라 스칼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라나 풍피두 같은 세계 최정상 문화 자산 역시 부산 사람들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난다면 단순한 수입품輸入品에 그치지 않고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동아시아 문화 거점文化據點’으로 진화할 것이다. 화끈하고 주저 없는 기질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빠르게 흡수하고 우리 것으로 체화體化할 훌륭한 자산이 아니겠는가.

해답은 배제排除가 아니라 융합融合과 상생相生이다. 이탈리아의 라 스칼라 극장의 개관 공연 초청 논란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그들을 불러와 공연을 보고 손뼉치고 떠나보내는 ‘일회성一回性 소비재’로 삼는 것이 아니다. 라 스칼라라는 세계 최고의 오페라 브랜드와 제작 시스템을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운영 역량運營力量을 극대화하는 지표이자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세계적인 연출가, 지휘자, 성악가, 무대 감독들이 부산에 머무는 동안 지역의 젊은 예술인들과 학생들을 위한 마스터클래스를 열고, 무대 제작의 노하우를 지역 스태프들에게 전수傳授하는 워크숍을 의무화해야 한다. 나아가 개막작의 주역主役은 해외 석학이 맡더라도,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조역助役 등에는 부산의 우수한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제작Co-production 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단계별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초기 1~3년 차의 도입기에는 라 스칼라나 풍피두 같은 글로벌 탑티어Global top-tier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유입시켜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국제적 인지도認知度를 단숨에 끌어올리고 전국의 관객을 부산으로 유인해야 한다. 이 시기에는 해외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을 높이되, 반드시 지역 예술계와의 기술적·인적 교류 조항을 계약書契約書에 명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어서 4~6년 차의 정착기定着期에는 초국적 공동 제작 콘텐츠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부산 오페라하우스 자체 제작 오페라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마지막 7년 차 이후의 성숙기成熟期에는 부산에

서 제작된 오페라와 콘텐츠가 역으로 아시아와 유럽의 무대로 수출되는 문화 생산 기지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물론 단계별 시기는 지역 전문가들과 치열한 토론討論과 합의合意를 통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되, 지향점指向點은 부산 오페라의 제작 능력 향상에 맞춰줘야 할 것이다.

풍피두 분관 역시 마찬가지다. 브랜드 사용료 지급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는 길은, 그 비용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글로벌 미술 네트워크 진입을 위한 입장료入場料’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풍피두의 기획력企劃力과 소장품所藏品을 통해 시민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시각 예술視覺藝術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술관 공간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부산 및 한국의 신진 현대미술 작가들을 소개하는 ‘상설常設 전시실’로 확보해야 한다. 풍피두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타고 부산의 예술가들이 세계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등용문登龍門을 열어준다면,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혈세 낭비血稅浪費 논란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해외 콘텐츠와 지역 예술 생태계가 서로를 보완補完하며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善循環構造를 설계하는 마스터플랜의 유무다.

### 세계를 향해 열린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부산을 기대하며

도시의 역사는 안주安住하는 자가 아니라 모험冒險하는 자에 의해 쓰였다.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풍피두 분관은 단순히 돈을 쓰는 소비형 시설이 아니라, 부산의 도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거대한 문화적 자산을 축적하는 ‘투자형投資型 인프라’이다. 2026년 현재 인구 330만 명이 위협받는 부산의 현실에서,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화 진흥策文化振興策이 아닌 도시 소멸都市消滅을 막기 위한 고도의 생존 전략生存戰略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업의 발목을 잡는 정쟁이 아니며, 지역 예술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세계적인 콘텐츠를 거부하는 폐쇄성도 아니다. 지금은 정치계와 문화계 그리고 시민 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이 ‘거대한 문화 하드웨어’

에 어떻게 하면 가장 뜨겁고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담아낼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온화한 사계절 기후와 수려한 해양 자원으로 다져진 기초 체력 위에, 부산 사람들의 화끈한 정과 역동적인 에너지가 결합하고, 여기에 세계적 수준의 '거시적 문화 인프라'가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된다면 부산의 미래,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천혜의 바다라는 자연유산(自然遺産)과 인간이 만든 최고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부산만의 독창적인 헤리티지가 탄생할 것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의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고, 저녁에는 세계적 수준의 오페라와 현대미술을 감상한 뒤, 부산 사람들의 따뜻하고 활기찬 정을 느끼며 돌아가는 그림은 '지금, 우리의 선택(選擇)'에 달려 있다. 이러한 융합형 관광 생태계가말로 부산의 위상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열쇠다.

'발칙한 발상(發想)'이 도시를 먹여 살리고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 문화 콘텐츠가 되었고, 국제마라톤대회가 보스턴(Boston)과 시드니(Sydney), 런던(London), 베를린(Berlin), 로마(Rome), 도쿄(Tokyo)를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도시 마케팅 콘텐츠'가 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콘텐츠를 어떻게 관리 운용하느냐가 관건(關鍵)이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름만 걸치는 형태로는 대표적인 '도시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없다. '제대로', '확실하게'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야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부산에 그런 문화 콘텐츠가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내국인(內國人)은 물론 수많은 해외 관광객과 팬은 비싼 항공권 비용을 물고서라도 줄을 서서 부산으로 몰려올 것이다. 한국인의 창조적인 기질이 이룩한 'K-컬처'를 통해 세계 사람들이 열광(熱狂)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 오페라는 클래식 예술 중 가장 막대한 자본과 정교한 시스템이 투입되는 종합 예술(綜合藝術)이다. 따라서 개관 초기에 라 스칼라 등 세계 최고 극장의 콘텐츠를 유입시켜 국제적 인지도를 타격하는 전략은 지극히 타당하

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오페라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상주 단체와 무대 스태프 등 '지역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自生力)'과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돈을 주고 해외 작품을 사 와서 무대만 빌려주는 '대관(貸館) 전문 대형 극장'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며, 이는 부산 시민의 자부심(自負心)과 자긍심(自矜心)을 무너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내외 전문가들의 냉혹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 스칼라 개막작을 통해 오페라의 '정석(定石)과 진수(眞髓)'를 제대로 배운다면, 얼마 안 가 그 '정석과 진수'가 부산 문화인들에 의해 키워져서 세계로 되팔릴 가능성이 높다. 막연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건실적인 투자(投資)'로 전환하려는 인식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분출된 다양한 이견(異見)과 비판(批判)은 이 사업을 더욱 단단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양분(滋養分)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새 부산시장 당선자는 무조건 이들 인프라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 대신, 누가 더 정교하고 비전 있는 문화 운용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초점(焦點)을 맞춰야 한다. 문화계 역시 부족한 예산 타령이나 막연한 소외감(疏外感)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야 한다. 오히려 세계적인 무대 위에서 자신들의 역량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지 '능동적인 대안(代案)'을 당당하게 제시해야 한다. 세계를 향해 활짝 열려 있으면서도, 지역의 뿌리를 잊지 않는 독창적인 문화 생태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글로벌 해양 문화도시 부산의 미래 정체성이다.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완공(完工)되는 날, 그 화려한 막(幕)이 오르는 순간은 단순히 하나의 공연(公演)이 시작되는 것을 넘어, 부산이라는 도시가 '세계 문화의 중심축(中心軸)'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는 '역사적인 선언(宣言)'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글. 심수화 언론인·칼럼니스트



# 여름에 피는 꽃

나는 꽃을 많이 좋아한다.

사계절 어느 때라도

꽃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그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위안을 느끼며

사진으로 담아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나 여름꽃은

뜨거운 태양과 무더위를 견디며 피워냈기에

더욱 강렬한 에너지를 품고 있다.

사는 일이 재미가 없을 때

여름꽃을 보라

마음 깊은 곳에서 힘찬 정열이 살아날 것이다...

글·사진\_홍순희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진행간사장





## 수월관음도

히말라야! 지구 위 가장 높은 산이 있는 아시아의 오지. 에베레스트, 안나 프루나, 칸첸중가, 마나슬로, 다울라기리. 8,000미터급 이상의 봉우리들이 줄지어 있는 험준한 산맥. 등반하다 죽은 산악인들의 수많은 주검. 그 위험에도 많은 사람이 동경하는 산맥. 일상을 보내기 급한 나에게서는 전혀 다른 미지의 세계. 가지 못할 상그릴라였다.



그러나 전자 문명의 발달로, 집과 직장을 오가는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던 나에게도 히말라야를 구경할 기회가 생겼다. 여행 유튜버들이 촬영한 히말라야산맥 영상물이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전문 산악인들의 등반 기록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고산지대를 트레킹하는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기에 현장감이 더했다. 여기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천장에 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터를 사서, 120인치 대형 화면을 비추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문명은 일상을 확장하며, 상상의 영역을 현실로 변주시킨다. 강력한 음향과 함께 천장에 펼쳐진 히말라야 풍경. 그중에서도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는 장대한 직벽의 솟구침만으로도 나를 압도했다. 허공에 탑처럼 병렬한 안나푸르나 1, 2, 3 봉. 히운출리. 강가푸르나. 마차푸차레.

히말라야 여행 트레커는, 안나푸르나 산군을 일주하는 보름 동안, 고산지대의 위험과 평온함, 아름다움과 공포가 병존하는 공간들을 보여주었다. 여행의 시작은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부터였다. 유튜버가 왜 멀쩡한 직장을 버리고 위험 가득한 히말라야로 향했는지 별다른 설명은 없었지만, 나는 짐작할 수 있었다. 여행자들은 시스템이 사육하는 동물농장에서 탈출해, 자기 일상을 온전히 지배하려는 나폴레옹이었으니까... 그 강렬한 자기애를 이해할 수 있다. 누구나 자기 삶의 독재자가 되고 싶은 법이니까.

카트만두는 네팔의 수도다. 그곳에서부터 히말라야 원정은 시작된다. 물품을 구매하고 가이드를 고용하고 입산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안나푸르나 서킷은 카트만두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착하는 다라파니에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다. 다라파니의 높이는 1,860미터. 여기서부터 안나푸르나 둘레길의 시작이다. 산의 풍경은 거칠다. 돌과 바위의 향연이다.

협곡은 멀리 보이는 설산에서부터 내려온 물들이 절벽 사이를 타고 쏟아지는데 보기만 하여도 한기가 돈다. 여행자들은 못지라고 불리는 숙소에서 하룻밤을 쉰다. 침대 하나와 세면장이 있는 단출한 숙소. 창밖으로 설산의 윤곽이 보인다. 압도적인 규모와 높이. 세상을 둘러싼 봉우리의 위엄. 그리고 직벽의 빗면을 따라 흐르는 눈의 성결함. 산! 그 자체 광대함만으로도 자연은 인간의 지배자임을 목시한다. 유튜버는 인간 이전 자연의 시원을 보려 하고, 나는 자연의 무상(無常)을 보려 한다. 인간 이전에 자연이 있어, 인간을 무상하게 만들지만, 무상해진 인간은 다시 그 자연을 무상으로 돌려보낸다. 풍혈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안나푸르나 산군은 허공을 압도하지만, 그 아래를 걷는 인간의 발걸음은 허공 속으로 스며든다.

고도 4,130미터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거치는 길은 가혹하고도 머나먼 고행이다. 사면을 따라 오르면 다시 또 비탈이 끝없는 오름을 강제한다. 돌은 삭막하게 부서져 날카로운 계면으로 발끝을 위협하고, 설산 한풍은 뺨속으로 파고든다. 히말라야는 원래 그런 곳이다. 유라시아 대륙판과 인도 태평양의 판이 깊은 물의 흐름에서 맞부딪쳐 심연을 저 먼 우주의 창 끝으로 밀어 올린 땅이 히말라야다. 아니다. 그곳은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그저 허공의 심연이다. 밤이 되면 낙조가 심연을 비추어 금빛으로 무상의 원융(圓融)함을 보여준다. 원융이란 설산의 흰빛이 늘 일정하지 않음을, 금빛이 늘 일정하지 않음을, 설산의 높음이 인간의 발아래 놓일 수도 있음을, 히말라야의 어둠과 새벽이 모두 빛의 원융함에 있음을, 그리고 유튜버의 작은 걸음이 히말라야의 허공에 흩어져 그 아득한 속으로 사라지기를... 나는 지켜보았다.

수월관음도는 고려 시대 불화의 정수다. 높이가 오 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법계의 파노라마다. 관음은 그림의 중앙에 히말라야의 설산처럼 좌정한다. 안나푸르나의 산군들처럼 그 표정은 장대하다. 그는 고통의 근원에 가 닿지 않고, 연기의 밖에 서 있는 허공이다. 그래서 관음의 정좌는 구원하려 하지 않고 방관하려 함도 아니다. 다만 그는 원용의 법계에 있음을 보여주려 한다. 남청색의 배경은 여명과 일몰의 경계가 모두 하나의 경계임을 나타내려는 화공의 원념이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그 모두가 속해 있는 법계. 화엄의 발현이다. 발치에 앉은 선재 동자가 관음을 향해 신세 명의 선지식을 물음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원용무애圓融無礙의 법계를 향한 수행의 발자취이다. 달빛이 그 자취를 격랑하는 물에 비추어 수월관음의 천 개의 달빛을 가리킨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라. 달빛은 천 개의 강과 천 개의 산을 비추며, 어느 곳에도 형체가 있고 어느 곳에도 형체가 없는 사사무애事事無礙의 관음을 보라. 그는 자비롭지 않고, 그는 인애하지 않는다. 그가 정병을 손에 들었음은 생명의 감로수로 세례를 주고자 함이 아니요. 다만 수월이 있음을 가리키는 손짓일 뿐이다. 그래서 수월도의 배경인 남청색은 두터운 화폭의 배면에서 배어 나오는 새벽도 아니고 밤도 아닌 수월의 빛이다.

관음의 보관은 형상이 없다. 형상 대신 휘황한 금과 수정, 벽옥 다이아몬드의 치장이 눈을 어지럽힌다. 목걸이의 영락은 귀족 부인의 장식처럼 사치하다. 속세의 고난을 벗어나 법계의 극락을 바라는 중생의 염원인가? 대자대비 천수관음의 중생제도의 위엄을 높이고자 함인가? 그러나 투명한 사라의 경계를 지나 배경의 남청색과 관음의 금빛이 어우러질 때, 화엄의 법계는 서로에게 스며들어 모두 일체가 된다. 화공은 금니를 녹여 왕과 평민, 화려함과 평범함, 붉음과 푸름, 배경의 남청색과 관음의 경계가 모호해져 법계가 모두 하나

임.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드는 형상임을. 금빛으로 원용의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는 서양의 성모상과 그 표현을 달리한다. 성모는 구원이며, 이 세상의 사랑이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비의 모후다. 그 미소는 인애하다. 성모와 이 땅의 인간은 구원자와 피구원자의 이분법이며, 소실점을 향해 달리는 구원의 기도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더 분명히 하느님의 손가락은 생명임을 가리켰다. 그들은 현세의 고통을 천국의 기쁨으로 위로하고자 하여, 내세의 구원을 육체적 선명함으로 재현시켰다. 하지만 수월관음은 좌정할 뿐 손을 내밀어 선재 동자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선재 동자가 천 개의 물과 천 개의 산을 지나며 신세 명의 선지식에게 구원을 물었으나, 그들은 제각기 대답하였고, 그들의 구원은 해탈에 이르지 못한 자기 연민일 뿐이었다.

‘연민하지 말라. 인애하지 말라. 욕망에 속하지 말라. 관음 이 쓴 보관과 목에 걸친 구슬은 속계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설법일 뿐, 무슨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겠느냐?’

보타락가산의 험준한 바위 위에 흔들리지 않는 좌정을 하고, 관음은 다만 침묵할 뿐이다.

수월관음도는 고려 불화다. 고려 말 왜구와 원과 흥건적의 침략에 시달리면서, 이 현세가 내세의 카르마임을. 눈물로 지어가는 인생의 고통이 관음의 보관이 되고 영락이 되어 그 또한 지나가는 업임을. 거센 풍량이 남해 보타락가산을 침노해도 흔들리지 않는 관음이 되리라.

화공은 일몰의 달빛과 새벽 별빛을 맞으며 비단 화폭 위에 화엄의 법계를 가느다란 선묘법으로 하나하나 새겨 나갔다.



안나푸르나 서킷 경로에 ‘틸리초 호수’가 있다. 마낭에서 ‘틸리초 호수’로 가는 길은 삭막한 고원과 차가운 바람, 허전한 햇빛, 그 사이를 흐르는 적요가 한없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나는 호수 ‘틸리초’다. 해발 4,919미터, 눈과 얼음의 산 계곡을 따라 펼쳐져 있는 물의 보타락가다. 그 위에 티리초 정봉의 눈 쌓인 그림자가 비친다. 밤이 되면 티리초 정봉은 사라지고 달 그림자가 가득하다. 그 빛은 온 천지에 만연하여 천 개의 강과 천 개의 산을 비추고, 톨롱라 언덕에 걸린 오방기는 남무관세음에게 귀의하여 천 개의 달빛에 절하는데….

“남무 보문시현 원력홍심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南無 普門示現 願力弘深 大慈大悲 救苦救難 觀世音菩薩

여행 유튜브의 히말라야 고산 트레킹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를 거쳐 푼힐에서 안나 프루나 베이스캠프로 가는 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내려오는 길, 안나푸르나의 고봉은 황금빛으로 불타올랐다.

글\_김창균 수필가



## 남아 있는 한 관객을 위해서라도

### 연극배우 서예은

- 2026 제44회 부산연극제 섹션 U 참가작  
〈하우스오픈〉윤채원役 /창작공동체 프리셋
- 2025 〈품〉이영숙役 /극단 동넵
- 2024 〈활화산〉길례役 /국립극단
- 2023 〈안개주의보〉학자役 /부산시립극단
- 2022 〈EAT! 'IN TO THE WOODS〉영매役 /청춘나비
- 2021 〈돈키호테 미치거나 즐기거나〉멀티役 /극단 우릿
- 2020 가족뮤지컬 〈토장군을 찾아라〉  
고등어, 다람쥐役 /오오씨어터
- 2019 〈미쓰홀리〉크리스틴役 /극단 물레방아
- 2018 제4회 하나다페스티벌 〈미모의 비법〉  
김미모役 /극단 우릿

꽃피는 4월, 부산의 봄을 연극으로 물들인 '부산연극제'가 막을 내렸다. '다-다르다'를 주제로 18개 공연과 8개 부대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초연작 〈하우스 오픈〉은 희곡상과 우수연기상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았다. 그 중심에는 우수연기상을 수상한 서예은 배우가 있었다. 작품의 리듬을 섬세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그녀를 만나 무대와 배우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서예은 배우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9년 차 배우다. 배우로서의 첫 무대는 2018년 하나다 페스티벌의 1인극 〈미모의 비법〉이었지만, 연극과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됐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 준비한 '10분 연극제'에서 배우 역할을 맡을 사람이 없어 직접 무대에 오른 것이 계기였다. 원래는 무대감독을 꿈꿨지만 조명 아래에서 바라본 객석의 풍경과 무대 위에서 느낀 설렘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결국 그 경험은 연극영화과 진학으로 이어졌고, 졸업 후 대학 동문들과 함께 극단 [우릿]을 창단하며 본격적인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제44회 부산연극제 수상작 〈하우스 오픈〉은 연극 〈춘향은 기다리고 몽룡은 오지 않는다〉의 첫 공연 날, 예상치 못한 위기 사건 속에서도 무대를 올리기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서예은 배우는 극 중 등장인물 연출의 아내이자 20년 차 배우 윤채원 역을 맡았다. 장르가 블랙코미디인 만큼 작품의 리듬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녀는 함께 출연하는 배우들과 장면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블랙과 코미디가 공존하는 특유의 템포를 맞추는 데 집중했다. 그 노력은 '작품의 리듬을 잘 살린 배우'라는 심사평으로 이어졌다.

배우 서예은에게 〈하우스 오픈〉은 수상 이상의 의미를 남긴 작품이다. 특히 작품의 마지막 대사인 "남아 있는 한 관

객을 위해서라도 하자”는 배우로서의 태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객석에 단 한 명의 관객만 남아 있더라도 끝까지 이야기를 전하는 것, 그게 배우가 가져야 할 자세이자 그 말이 단순 대사가 아니라 앞으로 무대에 서게 만드는 다짐처럼 들렸다고 한다.

그녀는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하기 위해 대본을 수없이 읽는다. 언제 숨을 쉬고 어떤 톤으로 말할지,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까지 고민하며, 대사는 외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배우라는 직업의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수성도 예민한 편이라 역할에 따라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 등 배우라는 길이 행복한 일만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럴 때마다 연극영화과 재학 시절 강희정 교수에게 들었던 “무대 위에서 너무 예쁘다”라는 말이 위로하듯 떠오른다. 더 불어 공연이 끝난 뒤 어린 관객이 건네는 “언니, 너무 재미있는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짧은 공연 한 편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다시 무대로 향하게 한다.

이처럼 서예은 배우가 9년째 무대에 오르는 이유는 ‘관객’이다. 연극은 같은 대본, 같은 배우가 무대에 서더라도 객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된다. 예상치 못한 순간 터져 나오는 웃음, 조용히 숨죽이는 객석의 공기, 공연이 끝난 뒤 전해지는 한마디의 인사까지. 무대와 객석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생생함은 연극만이 가진 힘이다. 또한 수개월 동안 연출과 배우, 스태프들이 함께 고민하고 연습한 시간이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되어 관객 앞에 펼쳐질 때 큰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한다. 최근에는 배우라는 역할에만 충실한 것을 넘어서 작품 전체의 서사와 흐름을 바라보는 시야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배우로서 부산 이외의 활동도 몰랐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다른 작품 때문에 잠시 부산을 떠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라 답하며 더 많은 극단과 공연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녀에게는 부산이 가장 좋은 작업 공간이라 답했다. 연기를 시작한 곳도, 함께 성장해 온 동료들이 있는 곳도 부산이기도 하면서, 최근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작 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양한 시도도 체감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부산은 단순한 활동 지역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시간과 기억이 쌓여 있는 공간인 것이다. 좋은 동료들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계속 만들어 가고 싶다는 마음 역시 이곳에 있다고 말한다.

2026년 하반기에도 서예은 배우는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7월에는 대한민국연극제 본선에 진출한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품〉에 참여한다. 작품에서 그는 동일방직 여성노조 2대 지부장 이영숙 역을 맡아 노동의 역사와 그 너머의 삶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맹진사댁 경사〉 등 여러 작품으로 관객을 만난다.

인터뷰 말미, 서예은 배우는 예술의 힘에 대해 카프카의 단편 「밤에」에 등장하는 문장을 꺼냈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꺼내어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삶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 그것이 예술의 역할이며 자신이 계속 무대에 있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눈 감을 때까지 이 일을 확신하지 못할 거라 말하지만, 그 말은 불안이라기보다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한 질문에 가까웠다. 남아 있는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라도 무대를 이어가는 사람. 말해지지 못한 이야기를 무대 위로 불러내는 사람. 서예은 배우가 앞으로도 부산의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본다.

글\_유다정 다정한세계 출판사 대표

제35회 부산무용제에서 [춤·삼경]의 <굿, 길베>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작품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과정을 ‘숨의 매듭을 풀어 순환으로 짓는 산 자의 춤’으로 형상화하며 정서적 공명을 이끌어 냈다. 춤꾼 13명과 약사 6명이 함께한 무대는 치밀한 구성과 완성도 높은 안무, 깊이 있는 주제의식은 물론 조명과 연주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 전통 굿이 지닌 제의성과 공연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삶과 죽음, 이별과 치유의 의미를 섬세하게 풀어낸 점이 주목받았다. 이는 오랜 세월 한국무용의 전통을 탐구하며 춤의 본질을 무대 위에 구현해 온 김미자 대표의 예술세계가 응축된 결과이기도 하다.

부산에서 태어난 김미자는 어린 시절부터 춤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2회 졸업생으로 부산대학교에 진학해 우리나라 전통춤의 대가인 이윤자 선생을 만나 본격적으로 춤의 길을 걸었다. 이윤자는 한영숙에게 전통춤을, 김천홍에게 궁중정재를 사사하며 한국 전통춤의 정통 계보를 이어온 인물이다. 승무·살풀이춤·태평무·학춤의 대가로 널리 알려진 한영숙은 한국 전통춤의 거목인 한성준의 예맥을 계승한 무용가로, 국가무형유산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우리 춤의 보존과 전승에 큰 역할을 했다. 한영숙으로부터 전승된 승무와 민속춤의 맥은 다시 이애주 선생에게 이어졌다. 평생 우리 춤의 전통성과 예술성을 지키며 무대와 교육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한 이애주는 ‘춤으로 한 시대를 감동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한국무용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2021년 별세 이후 현재까지도 그의 춤 정신과 예술적 유산은 여전히 많은 후학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김미자의 무용 인생 제2막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이윤자 선생의 추천으로 이애주 선생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이후 부산과 서울을 오가며 배움의 길을 이어간 세월이 20여 년을 훌쩍 넘어선다. 한국 창작춤의 영



춤. 전통. 문화. 굿

무용가 김미자

- 국가무형유산 승무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처용무 이수자
- 서울시무형유산 한량무 이수자
- (사)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이사
- (사)한국전통춤협회 부산광역시지부 이사
- (사)대한무용학회 이사/무용역사기록학회 이사
- 이애주-한국전통춤회 지도위원
- (사)처용무보존회 부산지부장
- 춤·삼경무용단 예술감독
- 예아트센터 대표
- 세계무용연맹 경상도지회 이사
- 영남춤학회 상임이사

역에서 활동하던 그가 전통춤의 근원을 찾아 나선 여정은 춤이 아닌 농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이애주 선생 곁에서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을 농부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이애주 선생은 김미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땅이 주는 소중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제야 김미자는 자신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을 흙과 함께 보내야 했는지 깨달았다. 선생은 춤 이전에 땅의 기운과 생명의 순환을 몸으로 익히게 하고자 했다. 자연의 질서와 생명의 이치를 체득하지 못하면 우리 춤의 근본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가르침이었다.

김미자는 그 시간을 통해 땅에서 올라오는 에너지와 생명의 순환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이애주 선생은 치장과 꾸밈을 건어내고 ‘내관(內觀)’을 통해 몸동작과 호흡을 자연의 이치에 따라 풀어가도록 이끌었다. 제자 김미자는 오랜 세월 땅을 밟으며 우리 춤의 근원적 발디딤과 몸의 이치를 체득해갔다. 그것은 곧 삶을 통해 얻은 배움이었다.

김미자는 승무를 비롯해 처용무, 한량무 등을 이수하며 전통춤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 나갔다. 오랜 수련의 시간 속에서 육체적·정신적 고단함은 어느 순간 확신으로 바뀌었다. 춤은 단순히 동작과 기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그는 동양철학과 주역을 배우고 지금도 계절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굿판을 찾아다닌다. 그 과정에서 문화가 어떻게 생성되고 지속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정신이 무엇인지를 몸소 익혔다.

〈굿, 길베〉는 김미자 대표가 오랜 시간 공들여 온 작품이다. 스승인 이애주 선생의 죽음에서 시작된 작품은 2021 영남춤축제 춤, 보고 싶다 〈창작춤판 태, 무극〉이라는 단편에서 시작해 〈생장수장(生長收藏)〉의 동양적 우주론 위에서 진도

씻김굿의 의례를 현대적 춤 언어로 구성하고, 다시 〈굿, 길베〉라는 대서사의 작품으로 완성됐다. 작품에서 죽음은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화의 순환 과정이며 이승에서 맺힌 한(恨)의 매듭을 풀어내고 다음 생의 비단길을 떠는 거룩한 전환점으로 해석했다.

김미자는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역시 원류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그에게 굿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어울리는 축제이자 우리 문화의 원형이다. 오늘날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승무에는 여러 유래 설이 전한다. 그중 하나는 걸립굿을 행할 때 연희 형식으로 펼쳐졌던 민중 친화적 춤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태평무 또한 경기도당굿의 장단과 발놀림을 바탕으로 한성준이 왕비의 복식을 차용해 예술적 춤으로 승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마을의 행사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행해졌던 굿은 시대를 거치며 새로운 해석과 변화를 거듭했고 오늘날 다양한 전통춤의 형태로 발전해 왔다.

그는 이러한 원형과 계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전통춤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과거 공동체가 함께 즐기던 축제와 놀이의 문화가 점차 무대예술로 전문화되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예술 장르로 분화되면서 오히려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래 우리의 춤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즐기던 삶의 문화였죠.”

김미자는 전통춤의 맥을 잇는다는 것은 단순히 춤사위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춤이 탄생한 문화적 토양과 공동체 정신을 오늘의 시대 속에서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음악과 춤, 그림과 글 그리고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졌던 우리의 전통문화는 예술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전통의 형식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정신과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 넣어놓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글 인물사진 정혜주

# 빗물의 연서戀書로 써 내려간

송운 松韻  
차달숙 車達淑

- 경남 창녕 출생
- 마산고, 육군대학, 한국방송법학과 졸업
- 육군소령 전역, 파월참전보국포장 수상
- 부산상공회의소 새마을연수원 교사(17년)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안보교육 강사(17년)
- 부산광역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24년)
- 부산광역시 교통문화연수원 외래교수(12년)
- 1999년 수필, 2008년 시, 2013년 시조 등단
- (사)부산문인협회·부산수필문인협회(사)부산시인협회·새부산시인협회(사무국장)
- 부산시조시인협회 부회장
- 부산국보문인협회(사)부산불교문인협회 자문위원
- 실상문학작가회·수영구문인협회·부산문학인협회 명예 회장
- 계간 『실상문학』, 월간 『국보문학』 주간
- 현)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한국불교문인협회 부회장, 『한국문학신문』 총괄본부장
- (사)부산문학상 대상, 한국국보문학 대상 외 다수
- 저서 『살구꽃이 필 때면』(수필집) 외 시집, 시조집, 수필집 다수(18권)

사람은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과 기질이 있다. 손재주가 있는가 하면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큰 장점이다. 가령 수백, 수천 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군대의 지휘자 이거나 CEO라면 두말할 것도 없는 자산이다. 송운(松韻) 차달숙(車達淑) 수필가가 그런 사람이다. 이름만 들으면 여자로 오인하여 세미나를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 여성을 룸메이트로 정해 놓기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했다. 수필가는 부산 문단의 여러 협회에서 집행부의 일원으로 혹은 회장을 맡기도 한 이력이 많아 문단사(文壇史)를 그이만큼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1945년 12월 17일 일본 시모노세키 부두에서 광복을 맞아 귀국선을 타기 위해 수속을 밟던 중 갑자기 태어난 그는 산모가 미역국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귀국선을 타고 고향까지 이동하는 바람에 젖동냥과 미음으로 생명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어른들은 “네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병약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는 중학생이 되면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였고, 학업을 이어갔다. 그 당시 전차영 교장 선생으로부터 미래의 정보통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상한 선생님이로 치부하였으나,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의 문학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서 중학교 교지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할머니의 인자함, 어머니의 강인함, 아버지의 성실함을 보면서 미래로 나아갈 목표가 있었기에 친구들에게 애늬은이라는 놀림을 받으면서도 문학책을 많이 읽고 생활에서 느끼는 감동을 글로 적기도 하였으며, 돌이켜보면 고통을 비워내는 카타르시스였고 미래를 향해 열어 둔 작은 창문이었다고 회고했다.

아버지는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았으며 특별한 재주가 없는 분이었지만 성실로 가족을 지켜냈으며, 어머니는 장터를 누비며 포목 장사를 하느라 남지, 영산, 길곡 등 오일장이 서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포목전을 펼쳤지만, 시골 장터에서는 얼굴이 신용이라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외상값이 밀리면 어린 그에게 수금해 오라고 하여 처음에는 힘들고 부끄러웠으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약한 아들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을 쌓게 한 어머니의 지혜였던 것이다. 그런 경험은 훗날 군생활과 사회생활 그리고 문학 활동에까지 큰 자산이 되었다고.

고교시절에는 이석(이순섭) 스승에게서 문단의 기라성인 김남주, 김춘추, 천상병 시인 등의 이야기를 듣고 문학을 동경하며 기자가 되려는 꿈을 키워 나갔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위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의 투병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바꿔 갑종장교후보생으로 입대하였다.

고졸 학력의 갑종장교 출신으로 20여 년의 군대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다. 남들보다 더 노력했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을 떠올리며 인내심을 가졌다고 했다.

1960년대 어머니의 병원비에 보태려고 월남 파병을 지원하였는데 정작 떠날 때는 어머니께서 유명을 달리 하셨다. 하루는 꿈속에 어머니가 나타나서는 “훈장에 욕심내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였고, 이후 좋은 예우는 동료에게 돌리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육군 갑종장교 시절, 고교 후배이자 학생 때 문예반 동아리를 함께 한 김태준 시인을 만나면서 묻어둔 문학의 씨앗이 꿈틀거렸고, 어느 날 부부 동반 회식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아내의 “당신이 글 쓰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라는 말이 꿈을 일깨운 동기가 되었다. 때마침 군에서 진중수기 공모가 있어 군생활의 경험을 진솔하게 써 응모한 것이 뜻밖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틈나는 대로 군인으로 살아오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원고지를 메꾸었고, 사람들의 얼굴이 문장이 되어 되살아났다는 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 준 또 하나의 기둥이 되었다.

군복을 벗어야 할 시점, 사회에 나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몰려왔지만, 다행히도 틈틈이 익혀 두었던 웅변과 글쓰기가 새로운 길을 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부산상공회의소 새마을연수원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으며 부산광역시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와 안보강사, 노동법 강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자 각종 사회단체와 기업체에서 강의 요청이 이어졌고, 주말에는 결혼 주례를 맡기도 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강의를 다니다 보니 등단은 하였으나 정작 창작에 쏟을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당신은 시를 더 공부해야 해요”라고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는 웃으며 “시가 밥 먹여주더냐”라는 말로 응수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생활인의 푸념이었고 아내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 무심한 남편이었다.

삼남매를 대학까지 모두 공부시켰고 각각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을 때 부모로서의 숙제를 다 하였으니 여생은 부부만의 시간을 갖자며 국내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가자는 약속을 하였다. 그리하여 처음 여행지로 젊은 시절 군생활을 했던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양평에 갔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어렵게 보낸 젊은 날의 기억들이 떠올라 감회가 깊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자신보다 아내가 더 오래 살 것이라고 믿었는데 갑작스럽게 불치의 병에 걸려 병상에 눕고 말았다. 병실 창가에 앉아 아내의 마른 손을 잡았다. 함께 늙어 갈 줄 알았던 아내가 먼저 떠날 준비를 한다는 현실에 세상이 멈춘 듯했고, 기적을 바랐으나 오지 않았다. 수필집 『어머니의 팔베개』는 부부가 함께 만든 마지막 책이다. 책이 발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는 조용히 곁을 떠났다.

허무와 절망의 날들로 밤이 되면 집 근처 산길을 해매거나 바닷가를 다니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던 어느 날, 문득 원고지 앞에 앉게 되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보고 싶다는 말을 압축하고, 미안함은 은유의 언어로, 차가운 새벽 공기에 수증기가 이슬로 맺히는 것처럼 사랑했다는 마음이 시어로 응축되어 시집 『아내의 텃밭』을 발간했다. 가고 없는 사람, 이생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작품 속에서는 마주할 수 있었던 『아내의 텃밭』으로 <한성기문학상>을 받았을 때만큼은 아내와 함께하는 기분이었다.

그럴 즈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자주 떠올리며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 틈 사이로 흐느낌 섞인 어머니의 시조 읊는 소리가 들렸다. 스물아홉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진 친정 남동생을 잊지 못한 어머니는 날마다 시조를 읊고 눈물을 삼켰다. 빗바랜 공책에 적힌 외삼촌의 글을 들추어 보며 동기간의 그리움을 달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한데 어쩌면 그때 이미 시와 시조의 씨앗이 그의 마음 한편에 심어졌는지도 모른다. 이후 2013년, 《한국동서문예》를 통해 시조 시인으로 등단했다. 『두리기둥』과 『시를 쓰는 밤』 등 두 권의 시조집을 펴내며 수필과 시 그리고 시조 등 장르는 다르지만 결국 문학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난 풍성한 나무가 되었다.

차달숙은 돌아보면 문학의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떠난 아내의 사랑이 한 줄 한 줄 문장의 여율로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면서, 수필은 그의 삶을 정리하게 했고, 시는 그리움을 견디게 했으며, 시조는 영혼의 고향이 되어 주었다고 했다. 삶은 언젠가 끝나겠지만 작품은 남지 않겠냐며 가족, 특히 아내의 믿음이 있어 가능하였다면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글을 쓴다고 했다. 그것이 문인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감사이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할 문학인의 도리라고 말했다. 대답 말미에 남은 생애 바라는 것이 있는지 물었더니 문학으로 받은 축복이 너무 많다면서 생전이 아니라 지수화풍으로 돌아간 후에 후배 문인들이 수필가의 이름으로 제정된 문학상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창밖의 무성한 가로수를 바라보았다. 수필가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아내를 향한 그의 마음을 표현한 작품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글\_윤기선 수필가



차달숙 제5수필집 『살구꽃이 필 때면』

당신을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진다  
말간 유리창에 흘러내리는 내 마음  
지워도 다시 쓰게 되는 짧은 글귀 긴 노래

내 사랑의 역사를 미련이라 하지 마라  
깊은 속 투명하게 비쳐 보인 이 있느냐  
아파도 삼키지 못하는 쓰디쓴 알약 같은

생의 구비 구비를 휘도는 나의 시여  
내가 잠들어도 시를 쓸 빗물이어  
미친한 내 시어詩語들이  
너를 만나 눈뜨리

- 차달숙 「빗물의 연서戀書」 전문  
고인이 된 아내를 생각하며

No. 54

## 꽃길로 가신 어머니

윤 기 선

잠자는 시간을 즐기며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을 뵙고 옥삼매의 밴드에 올리는  
막내여동생, 부산에 살고 있는 나는 서울이  
멀다는 변명을 하며 동생도 살마와 가지 말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와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동생은 우리가 아기 일 때 엄마는  
일주일에 젖을 두세 번만 주셨을까 라고  
하였다. 동생의 말에 ...  
어머님을 고향의 요양원에 모시고 낮에는 내가  
밤에는 둘째가 보살폈다.  
벚꽃이 휘날리는 봄날 어퍼리는 꽃잎따라  
가셨다.

**작가노트** | 어머니가 마지막 여행에 들었다. 막내여동생은 날마다 요양원의 어머니를 찾아 갔다. 큰 식당을 운영하는 동생  
인데 병이 날까 염려 되었다. 동생의 한마디에 뒤늦은 깨달음으로 어머니를 고향의 요양원에 모시고 낮에는  
내가 당번을 하고 밤에는 둘째가 당번이 되었다.

글\_윤기선尹紀銑 (사)부산문인협회 편집위원(현)

# RE: VIEW

- 음악 나는 너무 늙은 세상에 너무 젊게 나타났다.  
에릭 사티 \_ 김윤선
- 무용 “두려움에 대항하는 몸”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_ 장정윤
- 무용 제35회 부산무용제,  
부산 춤의 현재를 묻는 세 개의 몸 \_ 함수경

나는 너무 늙은 세상에 너무 젊게 나타났다.

## 에릭 사티

글\_김윤선 음악평론가



이상한 커리어에 괴짜 천재였던 사티는 예술계의 많은 괴짜 중에서도 특이한 성격과 범상치 않은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을 몽땅 털어 검정색 정장 세 벌을 구입해 평생 돌려 입고 다녔다. 거기에 검정색 고급 장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코트 속에 넣고 다녔다고 한다. 편지를 아주 정성껏 써서 본인 주소로 붙인다가거나 음식은 하얀색 음식만 먹는다는든지 자신만의 1인 종교를 만들어 신자가 되기도 하고 혼자만의 발행인이 되어 잡지를 만들어 돌리는 등 이해하기 힘든 일을 자초하였다. 이런 이상 행동의 이면에는 그의 불안하고 불행한 성장 과정을 떠올릴 수 있겠다.

에릭 사티의 가장 급진적인 발상은 ‘가구 음악 *Musique d'ameublement*’이라는 개념이다. 그는 베토벤, 브람스 같은 유럽 전역의 주류를 이루는 음악인 독일 음악에 반감이 있었기에 바그너 같은 진지하고 심오한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 또한 클래식음악은 부르주아 계급문화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다.

음악을 배경음악처럼 듣자는 그의 주장이 대부분의 콘서트 문화에서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지배적인 관습을 조소하듯, 사티는 자기 음악을 듣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것은 음악을 의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테이블이나 소파처럼 가구로 여기며 즐겨 달라는 요구였다.

에릭 알프레드 레슬리 사티 *Érik Alfred Leslie Satie*(1866~1925)의 아버지는 프랑스 노르망디 옹플뢰르의 해운 업자였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인이었다. 어릴 적 사티는 동네 성당 오르가니스트에게서 피아노와 그레고리오 성가 그리고 신비주의 사상 등을 배웠으며, 후에 사티가 파리음악원으로 가기 전 초기 음악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티의 나이 네 살 때 아버지가 파리에서 번역 일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이 그곳으로 이주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동생 콘라드 사티 *Conrad Satie*와 함께 고향인 옹플뢰르로 돌아가 조부모와 생활했다. 그러나 1878년 11살의 사티는 동생과 함께 다시 파리로 가 재혼한 아버지와 살

게 되었는데, 계모와의 사이가 상상 이상으로 최악이었다. 계모와 심하게 다투는 모습을 본 아버지와 결국에는 의절하고 말았다. 1879년 파리음악원에 입학했으나 재능이 없다는 평을 듣고, 1년 후 입영 영장을 받고 입대해서도 역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추운 겨울 가슴을 풀어 헤치고 의도적으로 폐렴에 걸려 강제 전역했다.

1887년 몽마르트르로 거처를 옮겨 19세기 말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르 샹 누아르(Le Chat Noir(검은 고양이 카페)) 카바레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며 인상주의 음악가 클로드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1862~1918))와 화가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렉(Henri de Toulouse-Lautrec(1864~1901)), 시인 파트리스 콩타민 드 라투르(Patrice Contamine de Latour(1867~1926)) 등 예술가들과 교류를 갖는다.

이 시기에 에릭 사티의 대표 피아노 모음곡 중 하나인 「짐노페디(Trois Gymnopédies)」와 『그노시엔느(Gnossiennes)」가 출판되었다. '짐노페디'는 영어 짐노페디아(Gymnopaedia)의 프랑스식 표기로 그리스어의 gymnos의 '벌거숭이'라는 말과 '아이(어린이)' 또는 '아들'을 뜻하는 파이스(παῖς, pais)라는 두 단어에서 유래된 말이다. 또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에서 행해진 벌거벗은 어린이 또는 남성에 의한 아폴로 신이나 박카스 신을 찬미하는 데 추는 춤을 의미하기도 한다. 혹자는 짐노페디는 아폴로를 찬미하는 대규모의 축제였으며, 결론적으로 나체의 소년이란 뜻이 있다고 전한다. 사티는 의식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혹독한 훈련으로 알려진 스파르타에 관심이 있었다. 그의 대표곡이면서 초기 작품인 이 곡은 전체적으로 느리고 선법적인 요소에 미묘한 불협화음으로 신비롭고 독창적이다. 곡은 콩타민 드 라투르의 시를 기초로 작곡했다. 당시 무명이었던 그는 '짐노페디스트'라고 자신을 스스로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기존의 질서와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을 외면한 채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을 비웃고 무시하며 반어법적 행동으로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든다. 사티는 의도적

이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를 놓아 버린 부모와 그의 예술세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카데미즘과 파리의 지성과 예술가들 가운데서 자존감을 잃어버렸던 것 같다.

그의 기행 이면에는 세계대전 이후 공황에 빠진 예술계와 무너진 지성이라는 배경이 있다. 유럽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이성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끼고 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진 예술계를 감당할 수 없는 시대에 정치적으로 중립적 도시인 베를린을 중심으로 다다이즘(Dadaism)이 싹트게 된다. 다다이즘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에 환멸을 느낀 예술가들이 기존의 이성, 합리주의, 전통 예술을 거부하며 일으킨 반예술·반명문 운동으로 전쟁을 겪으며 서구 문명의 합리성과 이성을 비판하며, 기존의 도덕·예술적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통제된 이성 대신 우연히 발생한 사건, 직관, 부조리한 자체를 예술의 한 유형으로 보게 되었다. '다다(Dada)'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목마로, 한편으로는 별 의미 없이 아이들이 첫입을 열어 말하는 용알이와도 비슷하다. 결론적으로 허무주의에 해당하기에 어떠한 이성이나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원시적 심미 세계를 담은 사조가 당시 예술인들 사이의 트렌드였다.

이 사조는 사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세상에 대한 염증과 정신적 맥을 같이하며, 사티는 이성적이고 권위적인 아카데미즘을 뒤로하고 다다이즘 트렌드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타 그 시대의 삶과 허무함을 비웃으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 중 「말라버린 태아(Embryons desséchés)」를 살펴보면 기괴한 제목에 많은 지시어를 써놓았다. 세 곡의 피아노 모음곡으로 제1곡 홀로투리아(해삼의 태아 d'Holothurie)라는 제목으로 무엇인가를 풍자하려 했다. 그는 음악에 미술적인, 시각적인 반향을 성공시킨 인상주의의 장을 연 드뷔시를 겨냥했다. 특히 드뷔시의 피아노곡인 「전주곡」 중 「음과 향기는 밤하늘에 흐르고(Les sons et les parfums tournent dans l'air du soir)」라는 부제를 가리켜 언어의 표제와 과장 없이 장면을

포착하지 못함을 비웃으며 사티가 느끼는 꿈보다 해몽인 언어의 유희에 헛헛해 했다. 사티에게 있어 입으로 떠드는 장황한 예술은 의미가 없었다. 사티의 기존 예술에 대한 이런 멸시는 「말라버린 태아」 마지막 곡에 더욱 선명해진다. 요란한 소음 같은 음악으로 장난스럽게 마치면서 시니컬한 유머를 그린다.

또 다른 하나는 「백사시옹Vexations」으로 프랑스어로 ‘짜증’이란 의미의 이 곡은 840번 연주하라는 지시어를 갖고 있다. 이를 모두 연주하려면 13시간이 소요된다. 이 이상한 작품을 초연한 연주자도 「4분 33초」를 작곡한 존 케이지John Milton Cage Jr.(1912~1992)다. 또한 이 연주를 끝까지 감상한 청중은 팝아트의 신으로 추앙받는 앤디 워홀Andy Warhol(1928~1987)이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미니멀 뮤직에 세인들은 다양한 해석을 쏟아 내었다. 그의 종교적 신념의 코드가 담긴 주문이라는 설과 미니멀 음악의 최면적인 효과를 최초로 시도한 혁신이라는 등등...

사실 사티는 음악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소리만으로도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가 말년에 주장한 ‘가구음악’의 극단적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음악이 집중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반문을 던지듯이 청중을 향해 보이지 않는 향기처럼 어느 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사티의 고민이 담긴 작품인 것이다. 실제로 그가 남긴 가구음악이 연주되는 순간 연주자와 청중이 집중하자 화를 내며 공연장을 돌아다녔다는 일화가 있다. 그건 자기의 의도가 아니었기에.

지금은 호텔 라운지나 바 등에서 들리는 배경음악인 「라운지 뮤직Lounge Music」이나 신디사이저를 사용해 공간감을 주며 분위기를 조성에 집중하는 일렉트로닉 뮤직의 한 장르인 앰비언트 뮤직Ambient Music 등으로 음악의 소비 패턴이 우리 삶에 다양해졌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사티의 음악은 미니멀 음악으로나 뉴 에이지 음악 정도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사티가 궤변론자처럼 기괴한 음악만 작곡한 것은 아니다. 「난 당신을 원해요Je Te Veux」의 감미로운 멜로디인 왈츠풍의 선율은 인생에 딱 한 번 사랑한 여인 수잔 발라동Suzanne Valadon(1865~1938)을 향한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그녀와의 하루살이 같은 연애 경험에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탄생했다. 그

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선율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과 가난, 그를 둘러싼 불행이 아방가르드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쓸쓸한 고독사를 맞이한 몽마르트르의 단칸방에는 똑같은 검정색 양복 세 벌과 수잔 발라동에게 써놓고 붙이지 못한 편지만 수도룩했다.



1895년의 에릭 사티

“나는 늙은 세상에 너무 젊어서 왔다”

- Eric Satie

#### 사진출처

##### Erik Satie

저자:Sonia y natalia - 저작, CC BY-SA 3.0,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24314722>

##### 1895년의 에릭 사티

저자: Unattributed - This file comes from Gallica Digital Library and is available under the digital ID btv1b8424759w,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3630588>

# “두려움에 대항하는 몸”

제22회 부산국제무용제 (2026. 6. 2. ~ 7.)

- 제1회 BDF Fringe, 제22회 BDF 개막식 특별초청공연, 제18회 AK21 안무가육성경연 -

글\_장정윤 동아대학교명예교수 현대무용가

2005년 제1회 부산국제해변무용제로 시작된 부산국제무용제(이하 BDF)는 시민의 예술향유를 위해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일부 지원으로 개최되며 해운대 해변 특설무대라는 장소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의 세계적 무용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재해에도 불구하고 22년간 무용제가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예술적 감수성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제1회 BDF Fringe(6. 2.-3.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는 ‘위기의 시대, 존재를 묻다’를 주제로 개최된 제22회 BDF의 프로그램 변화를 위해 신설된 플랫폼 성격의 독립성이 강한 무용 프로그램이다. 국제교류와 창작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이번 Fringe는 열린 참여형보다는 실험적 무용의 자유 독립 공연을 지원하여 무용예술 다양성의 가치를 높였고 국내·외 축제 관계자 등의 네트워킹으로 주목되었다. 타이완, 프랑스, 일본, 리투아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한국 등의 18개 작품이 프로시니엄 무대와 극장 로비 공간으로 나뉘어 공연되었다. 객석에서 올려다보는 거리감 있는 무대는 무용수 움직임과 세트, 소품 등으로 구성된 입체적 공간감을 구체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효과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로비 공간은 눈높이의 가까운 거리에서 무용수의 몸과 행위에 집중된 관객의 감각지각 경험을 일으켰다. 작품들은 모두 의미 연결고리로서의 매체와 기술 등의 활용과 무용 움직임의 상호작용 및 결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자유롭게 펼쳤다. 즉 매체로서 사용된 동작 어휘, 음향, 소품, 대사, 주변 환경, 관객, 미학 그리고 문화적 차이 등이 관전의 지평과 그 폭을 넓혔다.

이 공연은 프린지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합장르의 교차에 의한 우연, 즉흥성보다는 예술요소들 사이의 만남Interface과 상호작용Interaction하는 과정 자체로서의 몸과 행위, 메시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리투아니아의 〈센티폴리아Centifolia〉와 한국의 〈뼈 이야기Bone Story〉 그리고 〈흔들리는 땅Shaking Ground〉에서의 매체 활용, 타이완의 〈댄싱 큐비즘: 그림자 쫓기Dancing Cubism: Tracing Shadow〉와 에스토니아의 〈Bridges〉에서의 복합매체와 탈중심 등이다.



특별초청공연\_플러브 에스파스 컴퍼니FlouveEspace Danse <나무의 존재Être de Bois>

**[플러브 에스파스 컴퍼니FlouveEspace Danse]의 <나무의 존재 Être de Bois>**(안무·상탈 카론Chantal Caron)는, 제22회 BIDS 개막식 특별초청공연(6. 5.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의 첫 무대를 장식한 해변특화 공연작품이다. 이 무용은 자연에서 소외된 인간의 존재와 의미 상실, 그 위기에 대항하는 이 시대의 절실한 표명이다. 소품으로 사용된 뒤틀린 형태의 나뭇가지는 강가에 떠내려가는 마른 가지와 순록의 뿔을 연상시키면서 한동안 무용수 4명의 상체 위에 부착되어 신비한 이미지로 연출된다. 나무의 생명과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다. 무용수들은 체중을 땅으로 무겁게 내려디디며 걷기 등 원초적인 동작들로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존재의 근원을 묻는다. 또한 허리와 골반 움직임은 대지와 자연의 유동성에 동화된다. 정형화된 동작과는 거리가 먼 짧은 움직임 단위의 모티프로부터 발전되어 나온 담박한 동작들이 군무로 통일 반복되면서 이동 패턴의 굴곡과 에너지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내려 중심에 쌓아놓고 그 둘레를 원형으로 돌려 구름과 결렬한 몸 움직임으로 변화된 의식의

에너지를 높여 간다. 나무와 인간의 영혼이 만나 합일되기 위한 제의식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무겁게 반복되는 비트의 충동과 단순한 호핑hop이나 팔동작의 변형들 그리고 복잡한 패턴의 무대 이동 등의 구성이 세계 공간 내 생명감을 일으킨다. 그리고 처음 장면의 자연으로 돌아가 나무와 인간이 하나로 존재한다.

작품은 몸의 중력과 살의 진동을 이용한 원초성의 표현에서 인간 본연의 움직임과 호흡을 발견하고 그 생생함과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기쁨을 준다. 깊은 땅속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내뿜는 생명 에너지로 인한 나무의 신비로운 승화를 관객은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서서히 인식한다. 자연에서 소외된 인간은 존재와 의미를 상실한다. 자연 파괴로 인한 현실의 재해로부터 오는 인간의 도피와 공포감은 무용하는 몸에서 사라지고 나무와 그 순수한 영혼과의 만남은 인간의 존재를 일깨운다. 무용이 주는 생명의 힘과 에너지를 더한 영적 만남으로 고통의 불합리를 초월하고 자연의 불멸성을 배운다.



특별초청공연\_코테당스 컴퍼니(Côte Danse) <열기를 올리자Burn Baby, Burn>

특별초청공연작품으로 두 번째 무대에 오른 [코테당스 컴퍼니(Côte Danse)]의 <열기를 올리자Burn Baby, Burn> (안무·기욤 코테Guillaume Côte)는 무용·음악·자유를 열망하는 문화적 이미지와 감각 또는 레트로 감성을 응용해서 오늘날 인간의 살아있음과 힘의 의지를 관객과의 집단적 에너지로 실천한다. 현대인의 자신감과 몰입, 의욕적인 승리에 대한 흥분이, 강하고 반복적인 리듬을 타면서 신나게 춤추는 무용수 몸의 열기에서 전해진다. 디스코 댄스 스타일의 손동작과 큰 팔동작, 빠른 회전, 골반 뒤틀기와 흔들리기, 상체의 분절 움직임 등이 이동 공간의 방향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진다. 발레 동작에서 비롯되는 수직과 상승의 미학이 더해지고 응용된다. 단조롭지만 강한 박자와 자연스러운 흐름의 군무는 공간감을 높인다. 작품에서 주요 동작 단위로 사용된 상체의 부위별 돌리기body rock는 스트릿댄스의 분절isolation과 동일한 원리에 근거하지만, 체중을 옮기며 자연스럽게 흐르고 나아가는 에너지 흐름을 강조한다. 그 흐름의 느낌은 끊어짐과 멈춤으로 기계화된 로봇 이미지의 움직임 느낌과는 대조적이다. 이 무용은 오늘날의 전쟁과 기

후 위기 속 인류문명의 파괴 앞에서도 정지하거나 서로 단절될 수 없는 인간과 자연, 열정, 폭발적인 역동감의 지속 등 인간의 살아있음과 무한한 힘 그리고 존재의 회복력을 소통하고 믿게 한다. 근육 움직임이 돋보이는 유니타드의 이상, 할로겐 조명기술 디자인, 통일된 음악 등의 논리적 결합이 안무의 의도를 한층 높였다.

이상은 캐나다 퀘벡에 거주하는 안무자와 단체의 서로 다른 두 개 작품을 함께 공연하는 더블빌double bill 공연으로서 소재와 동작 어휘가 현격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이 시대의 동일한 문제의식을 다룬다. 인간 존재의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무용하는 몸으로 이겨내고자 용기를 올리는 트리거다.

수전 손택Susan Sontag은 “예술은 특정 역사 시기에 인간의 역량을 반영하는 거울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공연에서는 무용 장르의 고유한 특성과 움직임의 본질을 구현한 감정과 태도가 현실감각과 함께 새로운 시대적 감수성을 위한 예술형식으로써 중요한 위치로 부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현재의 예술에 중요한 의미를 준다.

제18회 AK21안무가육성경연 <너싫어> (안무 엄승훈)



제18회 AK21안무가육성경연 <로열 블루> (안무 윤희섭)



제18회 AK21 안무가육성경연(6. 7.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는 2026년 본선 경연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2025 AK21 최우수상 축하공연이 있었다.

2009년 BIDE 장학사업에서 출발한 'AK21 국제안무가육성경연'은 젊은 무용 인재의 발굴과 안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BIDE 공식 행사이다. 이번 본선에 진출한 네 명의 안무자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심리 상태의 변화를 다루고자 서로 다른 소재, 내용, 재료를 적절히 반영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공감대 형성에 접근하고 있다.

<너싫어>(안무 엄승훈)는 근육 기능 감각을 강하게 전달하는 남성 군무의 신체접촉을 모티프로, 언어 공격에 대한 육체적 저항과 감정을 쏟아낸다. 높은 벽 형태의 세트 공간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여 매달리고 미끄러지고 부딪는 동작은 현실의 장벽과 언어의 한계에 대한 도전으로 보인다. 한 남성이 그 위에 과감히 올라서는 승리감의 표현은 역설적인 순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 새 없이 변하는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용된 구멍 뚫린 벽, 풍선 등의 물체는 상징적인 의미를 열어둔다. 예를 들어 구멍 밖으로 신체 부위와 물체들이 드나드는 장면은 허영심과 집착, 증오감 등 심리 상태가 에너지로 순환되어 내부가 노출되는 환상적 효과를 일으킨다. 벽 구조물의 이동과 활용은 정지와 변화된 공간 지점이 주는 다변화된 의미를 창출한다. 단조로운 그러나 채색된 크고 작은 각종 물체 사이의 무대 내 거리감은 화려한 도시 내 잿빛으로 고립된 공간, 더 나아가 그들의 냉담을 상징한다.

<로열 블루>(안무 윤희섭)는 인간의 허영 심리를 신체 동작언어로 나타내는 추상적 표현에 가깝다. 번뜩이는 질감의 의상과 화려한 미러볼(mirror ball)의 불빛을 통해 사치와 현실이 드러난다.



사진 제공\_ 부산국제무용제 조보희 기자

<만선>(안무 이종운)은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여정에서 겪는 뱃사람들의 삶과 긴장에 대해 접근한다. 동양적 정서가 스며있는 갯, 상모 등의 소품과 다양한 형상으로 조립되는 돛단배 형태의 상징적 구조물 등이 그 위의 삶을 묘사하는 동작 어휘와 조화를 이룬다. 그것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생활과 정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만선>은 일종의 도덕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독특한 매력을 지닌다. 안무자는 근면한 삶의 한 면모를 설득력 있게 표현해서 인간미에 대한 공감을 일으키고자 한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안무 배현우)는 외출 후 돌아와 옷을 갈아입는 현대인의 장면에서 시작되어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무엇인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시간을 재고 생활하는 등의 행위에는 동작의 느낌 변화가 다각적으로 일어난다. 신체 부위의 작은 움직임 단위에서 일어난 미세한 동작과 제스처 등은 또 다른 동기에 의한 감정의 유발로 인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변화된다. 그 깊이와 폭의 범위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동작 언어와 감정의 톤이 올라가고 분위기가 긴장된다. 틀에 얽매이지 않은 시퀀스의 나열, 또 다른 움직임 단위의 변형 발전 등 그 무한한 구성은, 무용수 9명의 숙련된 움직임과 함께 확장된 의미를 전달한다. 어느 시대나 다르지 않게 인간의 심리적 불안을 다룬 작품은 적지 않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또한 계획된 구조 안에서 이 시대적 감성과 감각 톤의 범위를 무한히 드러낸다. 안무자는 무용수들의 개방된 감정이 넘치는 움직임과 연기로 극적인 지적 유희를 구축한다.

아무리 뛰어난 작품이더라도 관객의 공감이 따라주지 않으면 자기 탐닉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의 안무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기질을 무용의 특정한 상황으로 조성하고 감정을 관객에게 경험시킨다. 그들이 작품 대상을 경험한 대로 드러내고 표현하면서 진실을 말하고 창작 의미를 찾고자 하는 데에는 영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려는 측면이 있다. 그 가치와 의미는 안무자 고유의 주체성에 따라 끌어낼 때 발생한다.

## 제35회 부산무용제

### 부산 춤의 현재를 묻는 세 개의 몸

글\_함수경 잉스문화예술교육연구소 대표

제35회 부산무용제는 5월 23일과 24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열렸다. 올해 경연에는 현대무용 한 팀과 한국무용 두 팀, 모두 세 단체가 참여했다. 부산무용제는 전국무용제에 나설 부산 대표를 선발하는 경연의 장이지만, 동시에 부산 무용제의 현재를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참여 단체 수의 감소, 발레 부문의 부재, 대학무용교육 기반의 약화는 부산 무용 생태가 마주한 현실을 드러낸다. 그럼에도 올해 무대에는 자기 질문을 붙들고 움직임을 밀고 나가는 젊은 안무가와 오랜 시간 부산 춤의 뿌리를 지켜온 중견 예술가가 함께 서 있었다. 그 공존 자체가 이번 부산무용제를 다시 보게 만든 지점이었다.

첫 번째 경연작 [프로젝트 춤Project CHOM]의 <추리악>은 황세민이 안무한 현대무용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하나의 사건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사건 이후 남겨진 몸의 상태를 추적한다. 잘 훈련된 무용수들은 몸 내부의 에너지를 고요하게 밀어 올리거나 짧은 반복을 통해 공간을 이동했다. 군무와 솔로, 다양한 인원의 조합은 상반되는 구조 속에서 모이고 흩어지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감정의 폭발보다 관찰, 의심, 판단, 왜곡의 심리 상태에 가까웠고, 작품은 “누가 보았는가”, “누가 외면했는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무대 위에 남겼다. 무대에 놓인 철제 구조물은 이 작품을 읽는 중요한 장치였다. 그것은 감금의 틀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사대나 증언대처럼 보이기도 했다. 황세민은 고요 속에서 그 위에 올라서고, 매달리고, 몸을 걸치고, 다시 아

프로젝트 춤 <추리악>



래로 떨어졌다. 높은 곳에 선 몸은 불안하고 노출되어 있었으며, 언제든지 다시 추락할 수 있는 상태로 보였다. 이 구조물은 인간을 보호하는 장치라기보다, 인간을 드러내고 고립시키는 사회 구조의 상징처럼 작동했다. 무대 위에 등장한 대형 인형 역시 인상적이었다. 그것은 말하지 못하는 몸이자, 한 개인의 고통이 어떻게 증거물처럼 취급되고, 소문처럼 확대되며, 사회적 판단의 대상으로 놓이는지가 드러났다. 대형 인형은 인간을 닮았지만 스스로 말하지 못한다. 바로 그 침묵성 때문에 작품의 질문은 더 선명해졌다.

후반부에 두 번째 의상으로 갈아입고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회 안에 흩어진 개인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어떤 몸은 도망치고, 어떤 몸은 방관하며, 어떤 몸은 과장된 제스처로 상황을 소비하는 듯했다. 여기서 군무는 공동체의 연대라기보다 불안정한 군중의 초상에 가까웠다.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윤리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작품은 집요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깨어진 듯한 날카로운 바닥 조명 위로 모이고 흩어질 때, 그곳은 단순한 춤의 공간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가 벌어진 장소처럼 보였다. 몸들은 그 장소 위에서 사건을 다시 구성하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끝내 마주했다. <추리악>은 우수상을 받았고, 출연자인 황세민과 하주은은 각각 남녀 우수무용인상을 수상했다. 수상 결과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나는 누군가의 추락에 침묵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두 번째 경연작 [위오 댄스 프로젝트 W.i.o Dance Project]의 <빈: 호흡>은 박지현이 안무하고 출연한 작품이다. 작품은 들숨과 날숨, 멈춤과 다시 시작됨, 개인의 숨과 타인의 숨이 어긋나고 겹치는 순간을 안무의 기본 구조로 삼았다. 무용수들은 처음부터 강한 에너지로 무대를 장악하기보다, 어둠 속에서 낮게 웅크리고 천천히 일어나며 서로의 간격을 조심스럽게 감지했다. 이 느린 시작은 관객에게 움직임의 본다기보다 숨의 흐름을 듣는 감각을 열어주었다.

<빈: 호흡>의 몸은 무대를 점유하기보다 스스로의 힘을 털어내며 타인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주역 무용수 박정민이 무대 중앙에서 관객을 사로잡는 강렬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 무용수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거나 같은 결의 동작을 이어가며 군무의 에너지를 통일감 있게 만들어 냈다. 박지현의 안무는 호흡을 관념으로 남겨두지 않았다. 호흡은 몸의 높이, 속도, 무게, 방향으로 구체화했다. 낮아지는 몸, 흔들리는 몸, 다시 세워지는 몸은 각기 다른 숨의 결을 지니고 있었다. 심사 총평에서도 이 작품은 호흡을 안무 동기로서 삼아 신체 접근과 안무의 연결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고, 박지현은 이 작품으로 안무상을 수상했다. 부산의 젊은 안무가가 한국 춤의 호흡성과 동시대 창작무용의 감각을 함께 끌어내며 자신만의 언어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무대였다.

마지막 경연작 한국춤패 [춤·삼경 CHOM·SANGYEONG]의 <굿, 길베>는 김미자가 연출·안무한 작품으로, 제35회 부산무용제 대상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올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제35회 전국무용제에 부산 대표로 나서게 된다.

<굿, 길베>는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고, 남은 자와 떠난 자가 서로를 통과하는 하나의 길로 바라본 작품이었다. 흰 의상은 망자의 색이면서 동시에 정화의 색으로 읽혔고, 검은 무대는 죽음의 공간이라기보다 아직 이름 붙여지지 않은 심연처럼 보였다. 또한 무용수들이 강하게 흔들거나 바닥을

쓸어내렸던 나뭇가지는 장례적 정서를 생명의 순환으로 확장했다. 그것은 사라진 존재를 떠나보내는 행위이자 남은 자들의 마음을 정돈하는 행위로 다가왔다. 이때 춤은 재현이 아니라 정화에 가까웠다. 이 작품의 힘은 전통 소재의 사용 자체보다, 굿이 지닌 이야기와 관계성을 오늘의 무대 언어로 풀어내는 방식에 있었다. 산 자와 죽은 자, 개인과 공동체, 몸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연결이 작품의 중심에 놓였다. 무대는 깊이 있게 사용되었고, 장면들은 레이어를 쌓듯 겹겹이 이어지며 입체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라이브 연주와 검정과 흰색이 대비되는 무채색 의상, 나뭇가지 오브제, 조명은 따로 놓이지 않고 하나의 의례적 구조를 형성했다. 부산의 중견 무용가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한국 춤의 밀도와 무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작품 전체를 지탱하고 있었다.

올해 부산무용제의 세 작품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관계를 물었다. <추리악>은 사회적 침묵과 방관의 구조를 드러냈고, <빈: 호흡>은 자신을 비워내는 감각을 보여주었으며, <굿, 길베>는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생의 길을 춤극의 형식으로 열어 보였다. 세 작품은 장르와 세대, 움직임의 질감은 달랐지만 모두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가의 문제를 향해 있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몸, 숨을 받아들이는 몸, 떠난 자와 남은 자 사이의 길을 여는 몸이 부산무용제의 무대 위에 차례로 놓였다.

부산무용제는 오래된 지역 경연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그 안에는 부산 무용계의 현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경연은 순위보다는 예술적 질문을 남긴 시간이었다. 제35회 부산무용제는 대상과 우수상, 안무상이라는 결과를 넘어 부산 춤의 생태가 지금 무엇을 견디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부산의 춤은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 그 질문이 무대 위에서 계속 몸을 얻을 때, 부산무용제는 단지 지역 예선을 넘어 부산 무용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호흡하는 장으로 남을 것이다.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1화 —

## 「이별의 부산정거장」과 부산역



1954년 유니버설레코드에서 발매된 「이별의 부산정거장」 레코드

휴전으로 인해 피란수도 역할을 했던 부산은 수도가 서울로 되돌아감과 동시에 피란민들도 서둘러 자기의 연고지를 찾아 떠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리 밑에서 하천가에서 움막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산등성이 비탈진 곳에 판자나 콜타르로 된 하꼬방 생활을 하며 인동초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다. 국제시장이나 자갈치시장에서 아니면 부둣가나 역전 주변에서 생존경쟁에 부대끼며 동고동락했던 이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전쟁이란 소용돌이 속에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일거리를 찾아 허덕이던 그날들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새로운 동지를 찾아 떠나야 할 시간. 그러나 막상 정든 사람을 곁에 두고 떠나려고 하니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열차 시각에 맞춰 부산역으로 찾아든 정든 이웃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려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날따라 비까지 내리니 더욱 마음이 무겁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설움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의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정거장

— 「이별의 부산정거장」 가사 1절



호동아(유호)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가 불러 크게 히트한 「이별의 부산정거장」,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문성재의 「부산갈매기」와 함께 부산을 상징하는 가요로서 부산 사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애창하는 곡이다. 당대 최고의 작사·작곡가·가수가 참여하여 발표된 곡이라 그런지 더욱 관심이 높았다. 3절로 된 이 가요는 1절에는 피난살이의 생활에 대한 회상을, 2절에는 피난살이에서 맺은 인연에 대한 아쉬움을, 3절에는 남은 부산 사람이 화자가 되어 떠나는 피란민에 대한 미련을 담았다. 생존과 자유를 찾아온 부산에서의 피란살이는 고생의 연속이었지만,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분은 설렘의 연속이었다. 한마디로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환도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 교차하는 부산 피란살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곡으로서 1950년대 최대의 레코드 판매고인 5만여 장을 기록했다.

시인이자 가요평론가인 이동순은 이 가요에 국민이 열광한 이유를 세 가지로 들어 설명했다. 첫째는 가슴을 울리며 깊은 공감에 빠져들게 하는 가사, 둘째는 출발을 앞둔 증기 기관차의 기적소리와 철로에서 들리는 쇠바퀴소리 등을 연상케 하는 실감 나는 곡조, 마지막으로 애절함의 극치와 감동에 곧장 다다르게 하는 가수의 창법, 이렇게 세 가지의 기본이 어우러져 기막힌 조화의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니 절창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문화 평론가인 김영철은 “박시춘과 남인수가 완성한 불세출의 명작”이라며 “유랑민의 고단한 삶과 만남 그리고 이별을 노래한 유랑가 nomad song이자, 여로곡(旅路曲)”이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그동안 식민지 시대의 오랜 전형인 눈물과 탄식의 정조(情調)에서 벗어나 경쾌하고 현대적인 트로트의 세계를 보여준 유호-박시춘 콤비의 전쟁 가요 마무리 작품이자, 남인수 가요의 최대 걸작 중 하나였다.

또한, 이 가요가 탄생한 계기를 보면 가슴이 찡하다. 1952년 어느 가을날 작곡가 박시춘과 작사가 유호는 부산 공연을 마치고 자갈치시장에서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 피란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튼 피란민들은 부산 사람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는 데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는 “음악인으로서 정든 애환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 하나를 남기고 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고 하면서 둘은 공감하게 되고, 여기서 탄생한 가요가 「이별의 부산정거장」이었다. 시대 상황을 두고 “작사가는 이성으로 글을 쓰고, 작곡가는 감성이 선율로 나타난다”는 말처럼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이러한 전철을 밟은 것 같다. 가사를 보면, 피란살이의 생활에서 맺은 인연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을 담기 위해 구체적인 지명과 명칭을 썼다. 여기에서 작곡가는 경쾌한 폴카 리듬 속에서 서울행 열차를 탄 사람들의 희망적인 모습과 아쉬운 표정을 눈앞의 정경처럼 그려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 가요가 불렀던 그 무렵, 부산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실향민 못지않게 큰 실의에 빠지게 된다. 그것은 1952년 11월 27일에 발생한 부산역전 대화재였다. 중앙동 일대가 불바다가 되면서 주택 3,132채가 완전히 소실되고, 사상자 29명, 이재민은 6,000여 세대에 3만여 명이었다. 이 화재로 가요의 배경이었던 부산역이 불타버리고 말았다.

부산역은 서울 남대문과 부산 초량 구간에 경부선이 개통되고 3년 후인 1908년, 초량에서 부산역까지 구간 개통과 동시에 임시 역사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본래 부산역은 비잔틴풍이 가미된 르네상스 양식의 웅장한 건물로 1910년 10월에 준공되었다. 위치는 현재 부산 중앙동의 부산세관 건너편에 있는 무역회관 자리였다. 부산세관, 부산우체국 청사와 함께 부산의 근대 3대 건축물로서 한동안 사랑을 받을 정도로 멋진 건물이었다. 이러하던 건물이 불시에 일어난 화재로 인해 불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임시 역사가 들어서 피란민을 비롯한 귀성객을 맞을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1965년 11월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업무를 운영할 때까지 12년간은 임시막사 시대였다. 그러니까 자갈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상한 부산정거장은 화마로 인해

1952년 보수천의 피란민 움막집



사라진 뒤였다. 휴전협정은 화재가 난 그다음 해인 1953년 7월 26일이었으니, 이 노래가 만들어져 불리고 크게 유행을 한 것은 1954년 이후가 된다. 그러기에 노래 속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본래 건물이 아닌 가건물로 지어진 부산 임시정거장 시대였다. 이처럼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피란민이 부산을 떠나는 정서를 노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화재로 인해 한 순간에 부산역과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잃은 이 지역민들의 아픔을 삭이는 노래이기도 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처음으로 부산에 온 피란민은 1950년 6월 28일 오후, 열차를 타고 부산정거장에 내린 서울·경기도 사람 500여 명이였다. 이후로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꼬리를 물고 내려왔다. 그다음 해 1·4후퇴로 피란민은 최고조에 달해 200만 명을 넘어섰다. 결국 부산에서 이들을 다 수용치 못해 제주도나 인근 거제도, 김해, 양산, 밀양 등지로 분산해야만 했고, 전쟁이 끝나고 1955년에 부산 인구는 100만 명에 달했다. 이 정도라면 그동안 100만 명 내외의 피란민이 부산을 거쳐 대부분이 열차 편으로 상경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이 가요는 제목이 당시 불렸던 부산역이 아닌 다소 고풍스러운 맛을 풍기는 부산정거장이다. 이 점에 대해

부산역전 대화재 이후의 임시 건물의 부산역



서는 우리의 철도 역사를 한 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땅에 철도부설은 갑오개혁 이후인 1896년 일본인에 의해서 서울과 인천 사이 경인선 철도에서 비롯된다. 그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국내 철도 규칙을 개정하면서 ‘정거장’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1905년에 서울과 부산 초량까지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철도개통식을 할 때, ‘경성남대문정거장’이란 말이 역시 『고종실록』에 등장한다. 이후로 『조선왕조실록』에 12차례나 등장하는데, ‘남대문역정거장’ 또는 ‘평양역정거장’ 이렇게 역과 정거장을 붙여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부산역정거장이란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역이란 말을 사용해 왔다. 역시 『왕조실록』에서는 이와 관련된 말이 3,824회나 등장한다. 오늘날에 와서 일반적으로 정거장이 역<sup>驛</sup>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다. 일본 『철도용어사전』에는 ‘정거장’을 역·조차장·신호장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역은 열차를 정지시키고 여객과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역이다. 조차장은 객차와 화차를 열차로 편성 또는 분해하는 장치장을 말하며, 신호장은 단순히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

여 설치한 곳을 지칭한다. 이걸 보면, 정거장은 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부산·대구·대전·서울역처럼 규모가 큰 역엔 조차장과 신호장을 함께 갖추었기에 정거장이라 불렀다. 더구나 가요에서는 ‘역驛’이라는 공식 명칭보다 쉽거나 헤어짐의 장소라는 의미가 강한 ‘정거장’이라는 표현이 당시 사람들에게 한층 직관적이고 애절하게 다가왔기에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항상 영화와 가요는 동반자 관계였다. 인기 정상을 누리던 「이별의 부산정거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1961년 엄심호 감독에 의해 제작된 동명의 영화는 원곡의 내용과는 무관한 산파성 멜로드라마로서 내용은 이랬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법학도인 김진오(최무룡)는 단신 남하한 피란민으로서 부산 기생인 정채옥(김지미)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연정이 싹튼다. 곧 채옥은 진오를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게 하고, 학비도 대주며 순정적인 사랑을 바친다. 그러나 진오의 옛 애인이 진오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데리고 나타나면서 부산 기생 순애보는 막을 내리게 되고, 이에 낙심한 채옥은 어느 사장의 첩살이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였다.

우리의 일상에서 역은 이별과 만남, 출발과 도착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역과 정거장을 제목으로 둔 가요가 제법 있다. 먼저 ‘역’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안동역에서」다. 2012년 진성이 불러 그의 불세출이 된 곡이자, 한때 전 국민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1위로서 한동안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1990년 동물원이 불렀던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와 2019년 유산슬(유재석)이 불렀던 「합정역 5번 출구」는 지하철역을 노래했다. 더 파악하지 못해 그렇지만, 지하철은 시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 용어가 노랫말에 들어간 가요가 더러 있으리라 본다. 이에 비해 정거장이 들어간 가요는 역사가 깊고, 불린 가요도 10여 곡이나 된다. 대부분이 제목이 눈물과 이별이 결합한 정거장으로 되어 있다. 1959년 김희수의 「눈물의 서울정거장」을 비롯하여 1964년 임화춘의 「눈물의 정거장」, 1965년 박광자의 「이별의 서울정거장」, 1966 고봉산·남강수의 「이별의 대구정거장」, 1967년 김두곤의 「못 잊을 대구정거장」 등이 있고, 1981년 김수희의 「정거장」이 마지막을 장식한 것 같았지만, 최근에 다시 ‘정거장’을 제목으로 둔 노래가 하나둘 선보여지고 있다. 2013년 진형은 이별의 아픔을 정거장이란 공간



에 빗대어 발라드풍으로 「이별의 정거장」을 불렀다. 이어 가수 현숙은 2017년 마치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라도 하듯 “현숙이와 아무개 씨는 러브스토리를 만들고, 잘 있어라 잘 가라는 인사도 없이 헤어진 부산정거장”이라면서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아닌 「이별 없는 부산정거장」을 흥미롭게 노래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역 대신 정거장이라는 명칭을 쓴 곳은 없다. 그러나 가요에서는 여전히 이별의 상징적 공간으로 정거장이 등장한다. 심지어 최근 2026년 4월에 강준호는 「눈물의 정거장 Station of Tears」을 VIBECAST를 이용해서 감미롭게 들려준다. 그렇지만 아직도 정거장 노래하면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단연 독보적이다. 그것은 어려운 시기, 우리 이웃들의 애환이 서린 가요로서 오랫동안 함께 부르며 사랑받는 데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 이달의 AI 사용법 프롬프트로 음악 만들기

이번에 사용할 AI tool은 ChatGPT(챗지피티)와 AI Song Maker입니다.  
이달의 AI 사용법에서는 <젊음의 축제>를 소재로 노래를 제작합니다.

### [작사 준비]

- 1 만들고자하는 주제와 상황에 따른 음악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는 곡의 전개 등을 구상한다.
- 2 검색창에 'ChatGPT' 혹은 '챗지피티'를 검색 후 접속한다.
- 3 로그인하기

### [본격적인 가사 제작 및 프롬프트(시지시문장) 작성방법]

- 1 AI에게 “젊음의 축제 홍보 노래를 제작하려고 해.” 등 사용하고자 기획을 먼저 밝힌다.  
사용하고자 하는 주제와 기획 내용을 상세히 제시할수록 좋다.

**예시 프롬프트** 연경대가 낮고 댄스 경연 형식인 젊음의 축제를 기획했는데, 해당 축제 홍보 노래에 적합한 가사 제작해 줘.

- 2 추가로 구체적인 장르와 가사의 분위기,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고 가사 제작을 요청한다.

**예시 프롬프트** 댄스가 주가 되는 행사인 만큼 노래 가사가 통통 튀고 신나고 릴스나 쇼츠 챌린지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임팩트가 있었음 좋겠어.

- 3 1~2번을 함께 작성하여 전송 후 1차 가사를 확인하고, 수정이나 조정을 위해 세부사항을 더 작성한다.

**예시 프롬프트** 30초가량의 가사로 제작해 주고 가사에 젊음의 축제 타이틀인 “Move Move”가 꼭 들어가면 좋겠어. 중독성 있는 가사를 위해 반복하는 가사가 있으면 좋겠어.

- 4 원하는 최종본이 도출될 때까지 3번과 같이 세부사항을 요청하며 가사를 완성한다.

### [노래 제작 준비]

- 1 가사를 준비한 상태에서 검색창에 'AI Song Maker'를 검색해 접속한다.
- 2 구글 계정 로그인이 필요하다.

### [본격적인 노래 제작 및 프롬프트(시지시문장)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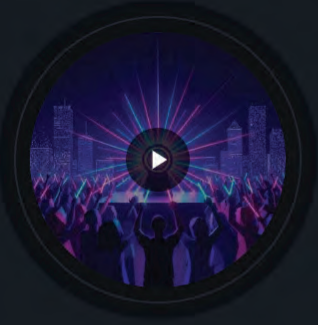
- 1 '가사를 노래로' 문구 버튼을 클릭한 후 원하는 AI Song Maker 버전을 고른다. 버전은 V1~4까지 있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 (\*해당 결과물은 V4를 사용해 제작함)
- 2 원하는 버전을 선택했다면 만들어 놓은 가사를 입력해 넣는다.
- 3 원하는 노래 장르나 구상이 있다면 '노래 스타일' 입력 공간에 기재한다. 하지만 노래의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아래의 #장르 #분위기 #템포 #악기 버튼을 활용하여 스타일을 완성한다.  
**Tip** #장르 #분위기 #템포 #악기의 버튼 중 하나의 선택사항만 선택해도 충분히 높은 퀄리티의 노래가 제작된다. AI음악을 처음 제작한다면 버튼을 사용해 노래 제작을 권한다.
- 4 노래 제목을 작성하고 '생성'을 클릭하면 노래가 생성된다.

### 【최종 정리】

시를 활용한 가사와 노래 만들기에서는 만들고자 하는 기획과 컨셉을 분명하게 기획한 후 제작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노래 제작 방식을 잘 몰라도 제공한 장르와 템포 등을 활용하여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다.

### 【완성본】

제작한 노래는 『예술부산』 인스타그램 @artbusan\_monthly 또는 아래의 Q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젊음의 축제 BGM

공 이선    May 20, 2026 10:56    0:10

▶ 재생    ↓ 다운로드    < 공유

↻ 유사한 곡 생성

### 가사

젊음의 축제 we go louder  
젊음의 축제 hands up higher  
웃어봐 right now  
오늘은 우리 time!



##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 Where?

- |                          |             |
|--------------------------|-------------|
| · 표2 (앞표지 안쪽)            | 700,000 (원) |
|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 700,000     |
|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 500,000     |
| · 표3 (뒷표지 안쪽) <i>마감!</i> | 500,000     |
| · 표4 (뒷표지) <i>마감!</i>    | 1,000,000   |

###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 시네바움 7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시네바움이 7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인문·예술·영화 등 다채로운 강연으로 관객을 만난다. 6일에는 김석모 미술사학자가 '15세기 피렌체에서 피어난 르네상스'를 주제로 르네상스 미술의 탄생과 의미를 살펴보고, 13일에는 '고전주의-신고전주의 미술'을 주제로 서양미술사의 흐름을 짚어본다. 20일에는 정익진 시인이 「헤드기어를 쓴 간호사들」로 문화평론가 박대현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돌봄과 위로의 시학'을 이야기한다. 27일은 '시네필의 가장 가까운 미지(未知)로, 단편영화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과 함께 신은주 감독과의 시네토크가 이어질 예정이다. 정기 프로그램으로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와 '하이쿠 산책'도 운영된다. 문의 010-2774-3455



## 연극 〈체온〉

7. 11.(토) ~ 19.(토)  
금요일/주말 오후 4시  
가마골소극장

가마골소극장 40주년 기념 신작 연극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작품은 거대한 산불 속을 떠도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단절과 무관심이 만연한 시대, 인간다움의 의미를 묻는다. 장애를 가진 네 인물과 소방대원 그리고 산속의 낯선 존재들이 만나며 현실과 초현실, 신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특한 서사를 펼친다. 특히 한 사람의 체온이 다른 존재에게 전해지며 달혀 있던 감각과 생명이 깨어나는 과정은 작품 서사의 핵심 요소이다. 유쾌한 상상력과 강렬한 이미지, 거침없는 대사가 어우러진 이번 작품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연대의 가능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문의 051)723-0568



## 2026 더하우스콘서트 줄라이페스티벌-프랑스의 빛 〈Ensemble Aris〉

7. 25.(토) 오후 5시  
비바아첼 챔버홀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트리오로 구성된 앙상블 아리스Ensemble Aris가 선보이는 실내악 무대이다. 에릭 사티, 가브리엘 포레, 클로드 드뷔시, 모리스 라벨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프랑스 음악 특유의 섬세한 감성과 우아한 색채를 들려준다. 특히 드뷔시의 「달빛」과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등 사랑받는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클라리네티스트 권다혜, 첼리스트 최지영, 피아니스트 김도연이 정교한 앙상블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무대를 이끈다. 프랑스 음악이 지닌 서정성과 인상주의적 아름다움 그리고 실내악의 매력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문의 051)746-2023



## 현대도예가 5인 초대전 아름다운 동행

7. 2.(목) ~ 29.(수)  
이기주미술관

일본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 대학원에서 쿠세겐지의 지도를 받은 다섯 명의 도예가들이 참여해 각기 다른 조형 언어와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쿠세겐지는 흙의 가소성을 살린 감성 풍부한 현대도예의 세계를 전개한 일본을 대표하는 도예가이다. 참여작가는 엄성도·이상용·김창욱·강흥석·임선희이며, 이들은 현재 대학 교육 현장과 지역 예술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흙과 불, 소성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들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깊이 있는 조형미를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한국 현대도예의 현재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010-5117-1594



## 파도는 멈추지 않고 모래 위에 글씨를 쓴다

6. 9.(화) ~ 8. 2.(일)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관  
기획전시실

1987년 6월민주항쟁의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전시이다.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이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반복되고 축적되어 왔음을 '파도'와 '모래 위의 글씨'로 풀어낸다. 김유경, 나나와 펠릭스, 박정원, 장우석 등 참여 작가들은 역사와 기억, 환경, 노동, 사회적 사건 등 동시대의 문제를 각자의 언어와 매체로 탐색한다. 전시는 민중미술의 형식을 단순히 재현하기보다 사회와 관계 맺고자 하는 예술의 태도와 실천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읽어낸다. 서로 다른 작업들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 구조의 관계를 드러내며 사라지는 듯 보이는 목소리와 기억이 현재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준다.

문의 051)790-7482



## 권혁 개인전 렌티큘러의 새로운 시각

7. 8.(수) ~ 8. 26.(수)  
아트웨이 갤러리

전통 회화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회화적 가능성을 탐구하는 전시이다. 작가는 오랜 시간 이어온 유화 작업을 바탕으로 렌티큘러 3D 기법을 접목해 평면 회화를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확장한다. 별도의 장비 없이도 입체감을 체험할 수 있는 렌티큘러 기술을 통해 관람객은 위치와 시선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작품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작품 속 도자기는 명상을 통해 떠오른 상상의 형상으로 작가의 내면세계를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전시는 정적인 이미지에 머물렀던 회화를 움직임과 시간성을 지닌 공간으로 확장하며 상상과 현실,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안한다.

문의 0507-1369-8386



### 강마물에 묻힌 서사 서태수 / 북랩

『강마물에 묻힌 서사』는 낙동강변 강마물을 배경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작은 생명들이 엮어내는 이야기를 담은 수필집이다. 낙동강 연작을 통해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구축해 온 서태수는 개와 쥐, 뱀 등 다양한 존재들의 시선을 빌려 인간의 욕망과 위선, 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본다. 강마물의 소박한 일상과 이름 없이 스쳐 가는 존재들은 때로는 유쾌한 웃음을, 때로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해학과 풍자가 어우러진 문장들은 가볍게 읽히지만 깊은 성찰을 남기며, 익숙한 일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강물처럼 흐르는 이야기 속에서 인간다움의 의미를 탐색하며 독자들에게 삶을 다시 바라보는 사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 물의 마법 송경희 / 육일문화사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풍경과 생명의 움직임을 따뜻한 시선으로 포착한 시집이다. 멀리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닌 생활 속 대상과 사건에서 시의 의미를 발견하며 예술과 삶이 맞닿아 있는 순간들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특히 시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생활공간에서 포착한 생명의 아름다움을 언어로 형상화하며 일상에 숨어 있는 생명력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더불어 기술문명과 자본 중심 사회 속에서 잊혀가는 인간성과 생태적 감수성의 가치를 환기하며 작은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시집 전반에 흐르는 싱그러운 색채와 긍정적인 정서는 봄바람처럼 생동감을 전하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건넨다. 『물의 마법』은 삶을 향한 낙관과 생명에 대한 애정을 담아 낸 서정의 기록이다.



### 렌즈의 고백 신갑섭 / 한국교육나눔연구소

『렌즈의 고백』은 사진과 언어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감성 포토에세이다. 저자는 카메라로 포착한 순간들을 단순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 안에 깃든 감정과 사유를 짧은 글과 시로 풀어낸다. 사진이 빛으로 기록된 외부의 세계라면 글은 그 순간을 통과한 내면의 울림이 되어 독자와 마주한다. 특히 계절의 변화와 여행의 기억, 존재에 대한 성찰을 따라 구성된 작품들은 이미지와 언어가 함께 호흡하는 독특한 감성을 선사한다. 저자는 한 장의 사진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끌어내며 삶의 의미를 되짚는다. 사진과 글이 만들어 내는 여백 속에서 독자 스스로의 기억과 감정을 발견하게 하는 조용한 기록이자 깊은 울림의 책이다.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                                                                                                |                                                                                                                                                             | 1<br>방송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50분<br>가곡교실(2층연습실)<br>13시~14시30분<br>아랑 고고장구(2층연습실)<br>15시~16시30분                                                              | 2<br>사잔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br>10시~11시50분<br>댄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br>13시~14시50분<br>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br>16시~17시50분<br>(야간)부산문인협회<br>부산문인대학<br>051)632-5888                                                                  | 3                                                                  | 4<br>(오전오후)<br>연구공간 수이제<br>제13회 문학순례~기행도<br>010-6555-1243          |
| 5                                                                  | 6<br>웰빙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30분<br>부산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br>섬유조형전공 동문<br>제13회 부산섬유조형전<br>010-9341-7212 | 7<br>댄스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부채춤교실(4층연습실)<br>15시~16시30분<br>부산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br>섬유조형전공 동문<br>제13회 부산섬유조형전<br>010-9341-7212 | 8<br>방송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50분<br>아랑 고고장구(2층연습실)<br>15시~16시30분<br>부산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br>섬유조형전공 동문<br>제13회 부산섬유조형전<br>010-9341-7212                           | 9<br>사잔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br>10시~11시50분<br>댄스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br>13시~14시50분<br>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br>16시~17시50분<br>부산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br>섬유조형전공 동문<br>제13회 부산섬유조형전<br>010-9341-7212<br>(야간)부산문인협회<br>부산문인대학<br>051)632-5888 | 10<br>부산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br>섬유조형전공 동문<br>제13회 부산섬유조형전<br>010-9341-7212 | 11<br>부산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br>섬유조형전공 동문<br>제13회 부산섬유조형전<br>010-9341-7212 |
| 12<br>부산대학교 대학원 조형학과<br>섬유조형전공 동문<br>제13회 부산섬유조형전<br>010-9341-7212 | 13<br>웰빙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3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br>051)631-1377    | 14<br>댄스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부채춤교실(4층연습실)<br>15시~16시3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br>051)631-1377    | 15<br>방송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50분<br>가곡교실(2층연습실)<br>13시~14시30분<br>아랑 고고장구(2층연습실)<br>15시~16시3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br>051)631-1377 | 16<br>사잔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br>10시~11시50분<br>댄스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br>13시~14시50분<br>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br>16시~17시5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br>051)631-1377<br>(야간)부산문인협회<br>부산문인대학<br>051)632-5888    | 17<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br>051)631-1377     | 18<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br>051)631-1377     |
| 19<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부산미술 서예작가회전<br>051)631-1377     | 20<br>웰빙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30분                                                                | 21<br>댄스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부채춤교실(4층연습실)<br>15시~16시30분                                                                | 22<br>방송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50분<br>가곡교실(2층연습실)<br>13시~14시30분<br>아랑 고고장구(2층연습실)<br>15시~16시30분                                                             | 23<br>사잔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br>10시~11시50분<br>댄스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한국무용교실 심화반(4층연습실)<br>13시~14시50분<br>한국무용교실 기초반(4층연습실)<br>16시~17시50분<br>(야간)부산문인협회<br>부산문인대학<br>051)632-5888                                                                | 24                                                                 | 25                                                                 |
| 26                                                                 | 27<br>웰빙댄스(4층연습실)<br>10시~11시3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br>051)631-1377  | 28<br>댄스스포츠 (4층연습실)<br>10시~10시50분<br>라인댄스(4층연습실)<br>11시~11시50분<br>부채춤교실(4층연습실)<br>15시~16시3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br>051)631-1377  | 29<br>가곡교실(2층연습실)<br>13시~14시3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br>051)631-1377                                                            | 30<br>사잔아카데미 초급반(4층회의실)<br>10시~11시50분<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br>051)631-1377<br>(야간)부산문인협회<br>부산문인대학<br>051)632-5888                                                                                                                                    | 31<br>(3층·4층전시장)<br>문화가있는날 : 예감<br>시로 푸른 감성을 전하다<br>051)631-1377   |                                                                    |

##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 메세나 광장

김 성 주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 문화와 예술의 즐거움을 누구에게나!

Play on Busan  
문화공연

오늘도 두근두근 BNK는  
누구나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부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를 위한  
**BNK**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계속 됩니다

부산은행  
갤러리

범시민 도서교환전

부산은행 어린이 미술대회

부산은행 창립기념 음악회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